

25일 Market Index			
↑ 코스피	6083.86	↑ 코스닥	1165.25
	(+114.22)		(+0.25)
↓ 금리 (연이자율)	3.124	↓ 환율 (원/달러)	1432.75
	(-0.034)		(-9.75)

# metro 경제



##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8천피 향해 점프!

## 서울 車보험 손해율 평균 92% 웃돌아 3년 만에 최고치

### 코스피 6천시대 개막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 대기업 실적 호조에李 정부 지배구조 개선 등 성과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돌파했다. 1956년 한국 주식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70년, 1983년 코스피를 처음 산출한 지 43년 만에 오른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고 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평가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사상 최고치인 6144.71까지 올랐다. 오후 조정을 거쳐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6083.86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000억원, 1조2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다. 외국인은 1조5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관련기사 13면〉**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국내 증시는 암울했다. 비상계엄 사태, 미국 관세 부과 정책 발표 등 영향으로 코스피는 지난해 4월 9일 229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00을 회복하며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 반도체 업황 부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맞물리며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첫 4000을 넘어섰다. 기세를 탄 코



코스피가 6083.86에 마감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스피는 올 들어 두달이 채 안돼 5000과 6000을 잇달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44.37%로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산업의 우량 대기업이 6000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207조원으로 불어나 전세계 시총 순위 14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730조원으로 시총 덩치가 커졌다. 반도체 덕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5024조3950억원)으로 불어났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1, 2, 3차 상법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6000 돌파 요인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이

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활성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이익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졌다. 맥쿼리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301조원, 272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코스피 영업이익이 600조원대 초중반까지 상향될 수 있다고 봤다.

상승 피로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세를

과열이 아닌 ‘레벨업 국면’으로 평가한다.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8000으로 높인 노무라금융투자는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슈퍼사이클 등으로 올해와 내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각각 129%, 25% 급증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구조적 개선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지수는 8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가상승세가 실물 경제 성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작궤탄을 맞았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2025년 기준)이 92%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또 전국 외제차의 52.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는 전국 외제차의 30.45%가, 서울에는 22.15%가 등록돼 있다. 서울·경기 보험시장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생명·장기손해보험은 서울의 가입률이 조정되는 가운데서도 유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자동차보험은 서울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 부담을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관련기사 11~17면〉**

25일 메트로신문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서울·경기 보험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2.88%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 보험시장의 핵심 변수는 ‘가입 확대’보다 ‘계약 유지’와 ‘원가 부담’으로 이동했다.

본지, ‘서울·경기 보험지표’ 분석 외제차 53% 서울·경기에 등록 수도권 변수 계약유지·원가부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가입률(2024년 기준)은 전국 77.1%, 서울 76.8%, 경기 75.8%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78.6%)보다 1.8%p포인트(p) 하락했고, 경기는 전년(75.4%)보다 0.4%p 상승해 같은 수도권에서도 흐름이 갈렸다.

다만 종목별로 보면 공통점이 더 선명하다. 서울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65.3%에서 60.7%로 4.6%p 낮아진 반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58.3%에서 58.7%로 0.4%p 올랐다. 경기 역시 생명보험은 57.0%에서 56.9%로 소폭 낮아졌지만 장기손해보험은 64.4%에서 65.5%로 1.1%p 상승했다. 전체 가입률 등락과 별개로 ‘생보 약화·장기손보 강화’ 흐름이 공통으로 나타난 셈이다. 유지율에서는 서울·경기의 상대적 강점이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생명보험 13회차 유지율은 서울 87.8%, 경기 87.5%, 전국 87.4%였고, 61회차는 서울 47.4%, 경기 46.4%, 전국 45.7%였다. 서울은 가입률 조정 국면에서도 장기회차 유지율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서울의 손해율 상승이 더 직접적인 경고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88%로 전년(87.65%)보다 5.23%p 상승했고, 전국 평균(87.58%)보다도 5.30%p 높았다. 서울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긴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김주형·안재선 기자 gh471@

## ‘갤럭시 S26’ 공개... AI 활용 쉽고 사생활도 보호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6

‘완성도 최적화’에 가격인상 상쇄 ‘울트라’ 전작대비 NPU 39% 향상 어두운 환경속 선명한 촬영 지원

삼성전자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AI 활용 방식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둘러싼 우려 역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3세대 아이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3세대 아이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 총 3개의 모델로 구성됐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갤럭시 전용 프로세서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해 전작 대비 NPU

성능은 39%, CPU와 GPU 성능은 각각 최대 19%, 24% 향상돼 역대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사용자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맞춤형 AI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나우 넛지’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나우 넛지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춘 개인화된 제안을 팝업 아이콘으로 제시하는 기능이다.

보다 직관적인 AI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도 함께 탑재됐다. ‘빅스비’는 더욱 강력해진 대화형 대비이스에 이진트로 업그레이드됐다. 사용자는 빅스비와의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설정 등을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제미니, 퍼플렉시티 등

원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작 대비 상향된 하드웨어와 카메라도 눈에 띈다. 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측면에서 화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는 넓은 시야각과 좁은 시야각 픽셀을 모두 활용해 기존과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좁은 시야각 픽셀만 작동시켜 화면을 정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제어한다.

카메라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2억 화소 광각과 5000만 화소, 광학 줌 수준의 10배 줌 망원 카메라에 전작 대비 더욱 넓어진 조리개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을 지원한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與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위 설치... 일각 “공취모” 해산하는게 맞아  
▲추미애 “집값 더 오를 거란 기대 반토막...李대통령 정책, 시장에 전달된 결과” /사진 뉴시스

▲주진우 “곰팡이 든 코로나 백신 접종은 범죄...정은경 왜 은폐했나”  
▲정세균 “법사위, 합의처리 관행 무시...숫자로만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조국 “저와 정청래·김어준이 반명? 분열의 정치 자멸의 길”

# ‘대산 1호 프로젝트’ 첫 발... 여수·울산 등 산단재편 탄력

롯데·HD현대케미칼 통합법인 설립  
고부가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1차 목표 ‘2028년 흑자 전환’ 설정

정부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설비 감축과 통합법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산단에서도 후속 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산 단지에 적절한 정부 지원책이 집중된 만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에서도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방식이다. 통합 이후 지분 구조는 5대5로 재편되며,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연산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 C)은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

의 연산 85만톤 설비만 운영한다.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다운스트림 설비를 축소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설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약 2450억원이 투입된다.

통합 법인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탄성 경량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335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합병회사는 사업재편 완료 시점인 2028년 흑자 전환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제제·원가 절감 패키지를 마련했다. HD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부문에서는 합병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최대 100% 감면과 법인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전기료를 4~5%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와 원자재 무관세 적용 연장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고부가 소재와 인공지능(AI) 공정혁신에 26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첫 사업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울산 등 다른 산단의 구조조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여수·울산 석유화학 단지는 노후 설비 폐쇄와 NCC 감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감산 규모와 손실 분담, 합작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최종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 설비 조정을 두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울산은 에스오일의 사힌 프로젝트와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의 기존 감산 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 1호를 통해 정부 지원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후속 산단도 이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지원이 더해진 만큼 각 기업의 사업 전환 의지와 실행 속도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희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KOSPI 6,000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439호(2026.02.25~2027.02.2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 정부, 2조대 금융지원 뒷받침

구윤철 부총리 선제적 혁신 강조  
“취득세 100% 감면, 에너지 특구 지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간의 관행타파·선제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가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대산 1호 사업재편’ 지원 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하겠다”며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선금 제도(공공공사에서 계약금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화했던 낙동강 수질을 (기존 2등급에서)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정부·기업·투자자가 해냈다… 증시로 ‘초고속 머니무브’

## 코스피 6000 시대

### 1 한 달 새 ‘압축 상승’

“이게 현실인가요?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네요”, “5000 때 익절했는데 후회되네요. 우물쭈물하다가 7000 같까 봐 추매고 민하게 됩니다”, “이젠 올라갈 재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인버스라도 해보려고요”

25일 코스피가 장중 6000포인트를 찍자 개인투자자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믿기지 않는다는 탄성, 놓쳤다는 조급함, 이젠 꺾일 거란 경계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이 쏟아진 배경에는 ‘너무 빨리 와버린 6000’이 있다. 숫자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그 숫자에 닿는 데 걸린 시간은 더 낮았다.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가는 데 13년5개월, 3000에서 4000까지 4년9개월이 걸렸는데, 4000에서 5000은 3개월, 5000에서 6000은 1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 10월27일 4000을 처음 넘긴 뒤 올해 1월22일 장중 5000을 찍고,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6000선까지 밀고 온 셈이다.

AI메모리 호황, 반도체 기대 확산 삼성·하이닉스 실적 개선, 지수 견인 HBM 슈퍼사이클, 이익 레벨업 부각 해외 대비 독보적 상승, 실적이 배경

단순한 과열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실적 개선과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증권주 강세가 지수의 체급을 끌어올렸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의는 주주환원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사이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면서 지수 상승 속도가 더 붙었다.

### ◆6000 까지 ‘압축 상승’… 독보적인 ‘상승 기술기’

이번 랠리가 더 도드라지는 건 해외 주요국과의 대비에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44.37% 수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2.31%, S&P500은 0.65%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1.63%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 13.02%, 대만 가권 20.66%, 영국 FTSE 100 지수 7.33%, 독일 DAX 1.82%, 중국 항셱H 1.45% 등도 상승하긴 했지만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코스닥 역시 25.91% 이상 오르며 ‘한국 만의 강세장’이 연출됐다.

코스피의 상승세를 위협하는 대외 변수도 발생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계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부과로 대응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고, 장 초반 5900을 넘겼던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장면도 나왔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재료가 반복 노출되며 ‘학습’된 변수로 인식됐다는 해석이 뒤따랐고, 코스피 상승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유동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전세계 시장에는 돈이 넘쳐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국경 간 은행 신용이 45조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



정은보(아랫줄 왼쪽 세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황성엽 금투협회장, 강민국 정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6000p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 등에 제공하는 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은행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3.6회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예금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통장에 있던 돈이 증시 등으로 더 자주 이동했다는 의미다. 실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1조53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4705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 잔액도 줄었다. 반면 투자자 예탁금은 1월 평균 예탁금은 106조3244억원을 기록했으며 100조원 돌파 이후 100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111조를 넘기기도 했다. 낮은 금리도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부추겼다.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05~2.90%로 3%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금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DC·IRP형 계좌에서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위 10개 중 국내 주식형이 5개 포함됐다. 10위권 내에 국내 주식형이 없었던 2024년, 1개에 그쳤던 2025년과 비교하면 연금 투자의 방향성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거래대금 급증, 대형주 동반 강제 예금 2%대, 자금 증시로 이동 예탁금 100조대, 유동성 버팀목 주주환원·자사주 소각, 재평가 불씨

지수가 먼저 뛰자 증권가의 눈높이는 빠르게 7000대로 이동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치를 7000선 이상으로 상향했고 12개월 선형 주당순이익(EP S)과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PER)을 결합해 밴드 상단이 7300~7900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외 IB 역시 7000~8000 구간을 제시하며 한국 증시의 이익 레벨업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 ◆반도체·3차 상법개정안, 코스피 ‘1만’ 시대 초석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한 이정표엔 그 시대의 주역이 있었다. 1000 돌파가 ‘3저 호황’ 속 건설·철강·상사의 트로이카가 주도했다면 2000선은 중국 특수에 기반한 조선·해운·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이 견인했다. 코로나로 풀린 엄청난 돈이 기반된 3000 시대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중심의 열기였고, 이후 5000에서 6000까지의 쾌속 질주는 AI 반도체 특수에 올라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로봇 기술을 입은 현대차, K방산이 받쳤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코스피 ‘1만’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으로 본다.

신디 박 노무라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전망 대비 대폭 상향한 7500~8000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13.0배, 주가순자산비율(PBR) 2.1~2.2배를 적용한 것이다. 목표치 상향의 배경으로는 메모리 업종 이익 확대

를 중심으로 한 일반 메모리 및 HBM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인프라 체인과 방산업종의 이익 강세를 꼽았다. 신디 박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반도체 시장 환경이 당분간 우호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섹터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또 다른 축은 정부의 정책이다. ‘코스피 5000’ 공약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이어갔다. 7월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8월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

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배당 확대 논의도 이어졌다. 3차 상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수가 줄면 순이익과 순자산에 발행 주식 수로 나눈 EPS와 BPS(주당순자산가치)도 구조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코스피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7760억원 가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5년 4월 1일 기준 주권상장법인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현재 최근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수치를 내놨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손해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 여성의 인생은 한 챕터로 끝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하던 보험에서 마음까지 챙겨주는 보험으로

현실과 멀었던 케어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하는 케어로(특약)

그렇게 여성의 현실을 깊이 살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9203호(2026.01.23~2027.01.22)

#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저탄소 전환금융도 도입

##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정부 2035 NDC 제시... K-GX 추진  
스코프3, 2031년 적용 방안 제시  
10년간 790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이석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이 공식 투자 판단 기준으로 편입된다.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탄소배출량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2028년부터 의무화되면서다.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

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율공시였던 ESG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해 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대응 수준을 투자자가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

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장치로 2023년부터 의무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행 시점이 올해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맞물린다. 정부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는 관련 산정 인프라를 갖춘 뒤 203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력업체 배출량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단위의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코프3가 본격 적용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은 물론 화학·정유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 2035 NDC 달성의 재원 기반도 강화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침으로, 기존 계획(2024~2030년 420조원) 대비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활동 중심의 녹색금융과 달리,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

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현장에서 녹색·전환금융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함께, 약속한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은 소망입니다.

안전을 위한 다짐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내일이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DB손해보험은 언제나 그 곁에서  
함께, 약속합니다.

#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유튜브 구독하기로 함께 약속!"



## CJ그룹, 3년간 1.3만명 채용

### 신입사원 공채 지속... 고용창출 앞장 "콘텐츠·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CJ그룹이 향후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CJ는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71%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CJ그룹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목표도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신규 인력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70%를 넘었다. CJ 올리브영, CJ ENM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뷰티·콘텐츠를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결과다.

또한, CJ그룹은 올해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 원으로 확충, 3년간 4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이기가 되어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CJ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젊은 이들의 꿈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IT 및 인공지능 중심의 채용 시장에서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에게 폭넓은 인재 등용문을 마련,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써왔다.

CJ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채용 규모)를 넘어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고잡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2월 기업심리지수 상승... 경기개선 기대감

경제심리지수 98.8... 41개월만에 최고

2월 기업경기조사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4.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2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는 97.6으로 6.6p 올라 기업들의 단기 경기 기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CBSI가 97.1로 전

월보다 0.4p 하락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2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8.8로 전월 대비 4.8p 상승했다. 이는 2022년 9월(99.0) 이후 최고치다. ESI 순환변동치도 97.2로 0.8p 상승했다.

다만 전산업 CBSI(94.2)와 ESI(98.8) 모두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 기업과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장기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다.

/김주형 기자 gh47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6천피된 날 국회 ‘3차 상법’ 가결… 여야 ‘법외곡죄’ 격돌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겨  
국힘 “적대적 M&A에 취약” 반대  
민주, 일부 위험 우려에 수정안 도출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 법사 필리버스터는 재석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외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외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 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외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험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도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외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 대통령 “경자유전, 이승만 헌법 명시”

농지 매각 명령 비판에 SNS서 반박  
“공산당식 발상? 원칙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농지 매각 명

령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끌어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이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 장동혁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국힘 특위,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 등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특위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나 무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예진 기자

## “수도권 편중 관광, 지역 중심 재편”

이 대통령 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향 관광·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황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 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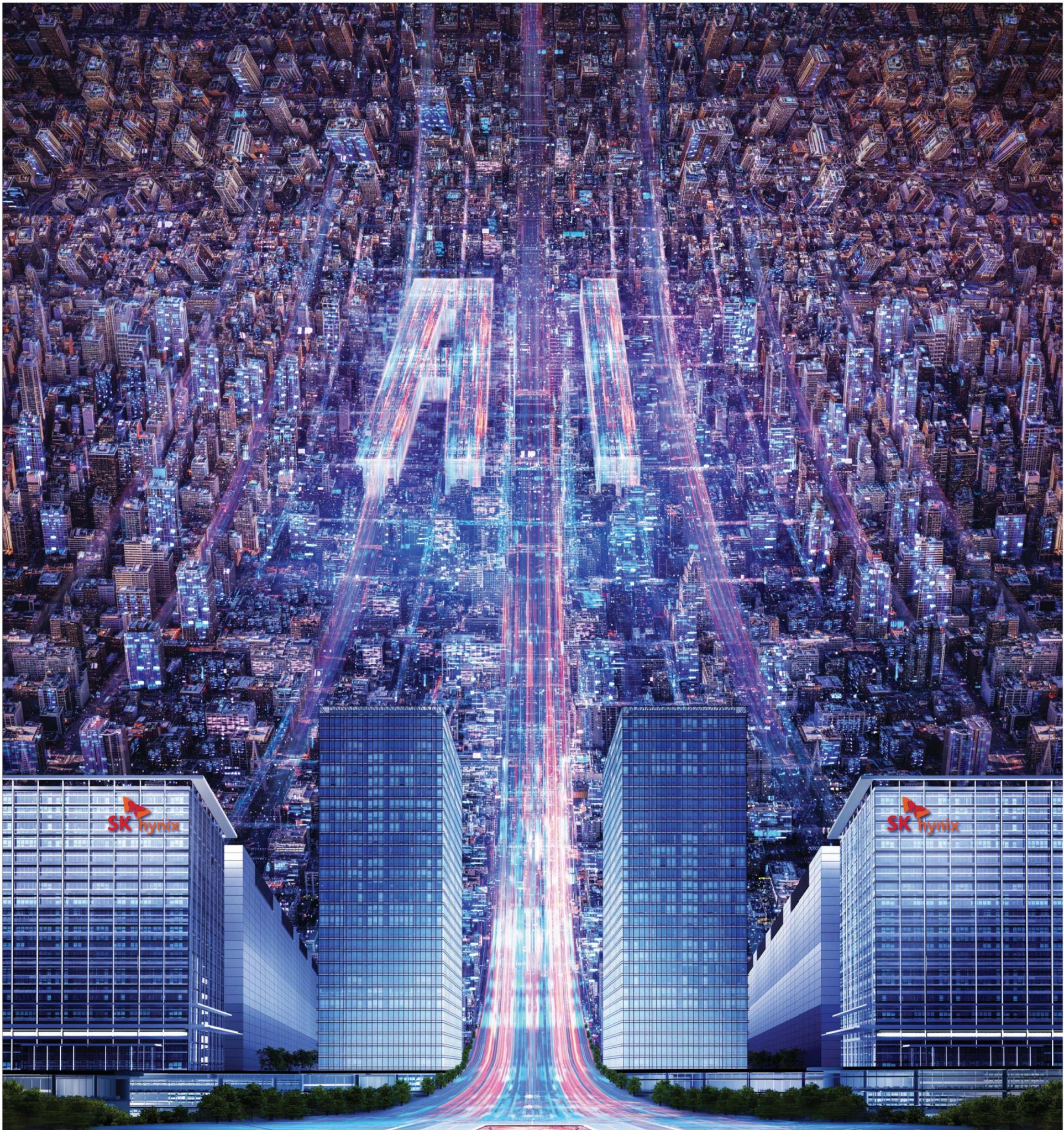
이종원 충북경찰청장 내정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

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서예진 기자



SK hynix

SK hynix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IPO 흥행’ 케이뱅크… 수익성 ‘인뱅 2막’ 성패 가를 변수

청약증거금 10조, 경쟁률도 무난  
작년 3분기 순이자마진 소폭 하락  
개인사업자 대출부문 긍정적 성과  
연체율 관리·NIM개선 등 검증필요



케이뱅크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에서 청약증거금 10조원을 모으며 무난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겉으로 보면 흥행에 성공한 셈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상장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확보 여부가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20일과 23일 양일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청약증거금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합 경쟁률은 약 140대 1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별로 보면 지난 24일 기준 NH투자증권 134대 1, 삼

성증권 135대 1, 신한투자증권 140대 1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일반청약 흥행에는 최근 은행주 강세 흐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 은행지

수는 1월 2일 1297.13에서 23일 1780.11까지 오르며 37% 상승했다. 4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기대가 반영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서 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이익 대비 주가)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케이뱅크는 피어그룹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8배를 적용했으나, 공모가 확정 과정에서 약 20% 할인되며 실질 PBR은 약 1.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PBR 약 1.61배인 카카오뱅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란 평가다.

다만 상장 흥행이 곧 실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어떤 수익 구조를 구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 변동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개선, 중저신용자 대출 관리, 비이자 수익 확대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형 성장의 속도보다 수익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가 ‘인터넷은행 2막’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현재 케이뱅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은 2024년 1.91%에서 지난해 3분기 1.38%로 0.53%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를 제휴해 외형을 키웠지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 0.1%에서 2.1%로 올렸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조 1500억원에서 2025년 말 2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83%에서 0.62%로 하락해 성장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네이버페이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여신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데이터 기반 확장이 실제로 연체율 관리와 NIM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장 이후 실적 흐름이 ‘인터넷은행 2막’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형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높은 밸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가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롯데·비씨카드 수장 교체… 경영쇄신 나서

롯데-정상호, 30년 경력 내부통 인사  
비씨-김영우, 본격 체질개선 나설 듯

롯데카드와 비씨카드가 수장 교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는 조직 안정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비씨는 쇄신을 통한 체질 변모에 집중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신뢰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새 대표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롯데카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정상호 전 롯데카드 부사장을 단독 추천했다. 정 후보자는 내달 1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내부 출신 인사를 신임 대표에 내정하면서 조직 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실제 정 후보자는 30년 경력의 내부통 인사다. 1963년생인 정 후보자는 옛 LG카드, 현대카드를 거쳐 삼성카드 전략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20년 조좌진 대표 체제 출범 시기에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후보자



김영우  
BC카드 대표이사 후보자

맞춰 롯데카드에 새롭게 합류했다. 조 대표가 취임 직후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려온 외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롯데카드 관계자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 경영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빠르게 조직 안정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도 5년 만에 수장이 바뀐다. 비씨카드는 지난 19일 임추위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에 김영우 전 KT 전무를 내정했다. 1959년생인 김 후보자는 비씨카드의 모회사인 KT에서 재무실 IR 담당,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KT그룹 경영실장 전무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씨카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3연임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의 후임이어서 비씨카드가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 대표 체제의 체질 개선은 글로벌과 신사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 임추위는 “재무, 전략, 글로벌, 신사업 등 경영 전반의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영 전문가로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씨카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영자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양사 모두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임 대표들의 수익성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롯데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나 업계 전반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새 먹거리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금융위, 금리인하요구 자동 비대면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요청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뒤 금융회사의 수용을 받아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청이 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

자를 선택해 가입한다. 이후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곳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국토부,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6개 기술에 최대 5억씩 총 30억 규모

국토교통부는 25일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시티혁신기술실증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혁신 기술을 도시 현장에서 실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도시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이다. 6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계약 체결 후 오는 12월까지 실증을 수행하며,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30일로,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다. /성채리 인턴기자

## IBK기업은행

### 아이원뱅크 등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차헬스케어와 협력… AI기반 서비스

GS건설 자이(Xi)가 주거단지 커뮤니티에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GS건설은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협력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단지에 ‘헬스케어 컨시어지’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헬스케어 컨시어지는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건강·웰니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외부 병원 예약과 검진 후속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헬스케어 컨설턴트가 상주해 입주민의 건강·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식단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GS건설이 차헬스케어와 협업해 적용 예정인 ‘헬스케어 컨시어지’. /GS건설

입주민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라이프 케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성수1지구에 처음 적용되며, 향후 다른 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문화 파트너십을 통해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전 세계 '초고압·직류·해저' 연결... 구조적 성장 구간 진입

## 글로벌 톱티어 K-산업

### 전선업계

송전망·해상풍력 등 수주 증가  
주요기업 실적개선 흐름 뚜렷  
생산설비·고부가제품 투자 확대



LS전선 직원이 구미 공장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있다. /LS전선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전선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선업계가 초고압(HV)·HVDC(직류)·해저 케이블 중심의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난해 실적적으로 반영되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가운데 양사는 HVDC·해저 설비 증설과 인증 확보, 턴키 역량 강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수혜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투자 확대가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내 전선업계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인프라투자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송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해상풍력 확대와 국경 간 전력 연계 강화로 HVDC 수요가 늘고 있다. 수급 타이밍은 가격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케이블 가격은 거의 두 배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LS전선·대한전선의 2025년 실적으로 이어졌다. LS전선은 연결 기준 매출 7조5430억원(전년 대비 +11.5%), 영업이익 2795억원(+1.8%)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6조2171억원, 2024년 6조7653억원보다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

통상 수주 후 1~3년의 시차를 거쳐 매출로 인식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초고압·HVDC 프로젝트가 2025년 실적으로 반영됐다. 해석이 나온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지중 케이블(1130억원 규모)을

수주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유럽 송전망 운영사 테네트와 2조원대 해저 HVDC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5년 잠정 매출은 3조6360억원(+10.5%), 영업이익은 1286억원(+11.7%)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조8440억원, 2024년 3조2913억원에 이어 매출이 급성장중이다. 지난해 연말 수주잔고는 3조663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21~2022년 미국·카타르·캐나다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2023년 해저케이블 포설선 인수로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체계(EPC) 수행 체계를 갖춘 점도 실적 기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원가연동 구조를 갖춘 전선업계는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되면서 매출 확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도 했다는 평가다.

#### ◆ 공장 증설·통합 솔루션 마련 등 미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전력망 투자와 해상풍력 확대에 힘입어 HVDC·해저케이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글로벌 HVDC 케이블 시장이 지난해 133억달러에서 오는 2035년 613억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이 지난 2024

년 112억달러에서 오는 2032년 18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LS전선은 생산능력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해 제5공장을 통해 HVDC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렸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CES 2026에서는 한국전력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실시간으로 케이블 이상 위치를 99% 이상 정확도로 탐지하며, 이를 자산관리 플랫폼에 통합해 운영·진단까지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현재 지중 초고압 케이블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당진 전선 부문 가동률은 93%로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운 반면, 지난 2024년 준공한 당진 해저 1공장은 가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아직 확대 단계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저·HVDC로 축을 넓히고 있다. 525kV HVDC 전압형 케이블 국제 인증을 확보한 데 이어 525kV HVDC 해저 케이블 시제품을 공개하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적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회사는 640kV급 생산이 가능한 해저 2공장을 오는 2027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 SK온, 2.5만t 리튬 확보... ESS 사업 박차

### 포스코그룹 장기구매 계약 체결 양사 폐배터리 재활용 등 협력 논의

SK온이 포스코그룹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배터리 원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대응해 중장기 원소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포스코그룹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법인 포스코아르헨티나로부터 최대 2만5000톤의 리튬을 공급받는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실장(왼쪽)과 이재영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소재사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리튬 장기 구매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이는 전기차 약 4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원

소재 시장의 수급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리튬 가공 시장이 특정 국가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인 만큼 공급망 안정성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달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계약식에서 양사는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SK온 ESS 제품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ESS 시장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자회사 포스코HY클린메탈을 활용한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원관희 기자 wkh@

## LIG넥스원, AI 기반 군집무인기 공개

### DSK 2026 참가... 무인기 솔루션 선포

LIG넥스원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DSK 2026'에 참가해 자폭·정찰·수송을 아우르는 무인기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은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무인기를 처음 공개하며 미래 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AI 기반 군집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 중인 캐니스터 발사(다연장 발사형) 방식의 자폭형 소형 무인기로, 군집 운용이 가능하다. LIG넥스원은 해당 사업에서 체계종합과 AI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MCUP) ▲탑재중량 40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MPD) ▲미래 도심항공교통(U



LIG넥스원 'DSK 2026' 부스 전경. /LIG넥스원

AM)에 활용될 첨단 비행체(AAV)에 특화된 '통합항공전자시스템' 등을 전시한다.

항공 EO/IR(전자광학·적외선)과 지상 차세대 전자용 EOTS(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전자광학 시스템도 선보인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 타격, 수송에 이르는 기술력을 소개하고 유무인복합 체계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군 구원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 KAI, 사장 선임안 미상정 기아 조지아 공장, 누적생산 500만대 달성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임 사장 선임이 노동조합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 안건에는 신임 사장 선임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KAI는 김종철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선임 논의 보류에는 노조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부장이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조는 이사회가 열린 서울로 상경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 美 시장 공략 핵심기지 역할

기아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격전지인 미국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기아 조지아 법인은 24일(현지시간) 누적 생산 500만대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지아공장은 2009년 중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구축된 기아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연간 34만여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가운데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쏘렌토, K5, 쉐타페 등을 생산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북미 소비자 요구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략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꼽힌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기아 조지아는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는 전세계 유일의 공장으로서, 이번 생산 개시는 단순한 신차 출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며 "500만대 생산 달성과 조지아주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기아의 기술적 진전과 미래 전략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항공, 영문약어 'KAL' 사용 중지

### 서비스 명칭 'Korean Air' 중심 안내

대한항공이 60년 넘게 사용해 온 영문약어 'KAL'을 회사 공식 문서인 정관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를 수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관에 명시됐던 '영문 약호 KAL' 표기를 삭제

하고, 'KAL 리무진버스사업' 및 'KAL 문화사업' 등 부대 사업 명칭에서도 'KAL'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서비스 명칭을 'Korean Air'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내부 시스템에서는 KE를 사용한다. KE는 'KE 901'처럼 항공편명 앞에 붙는 국제 표준 식별 코드로, 글로벌 예약·발권 시스템과 항공권, 탑승권, 공항 전광판 등에 사용된다. /양성운 기자

# 지선 앞두고 지방 中企정책 호소... 리쇼어링 범위 확대 촉구

중기중앙회, 지방시대위와 소통회의  
유턴기업 감소세... 제도 손질 요구  
해외생산 국내 이전 유인강화 주문  
김 회장 “산단 업종규제 내거티브 전환”  
김 위원장 “지방 성장주도 지원 최선”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거점대·폴리텍대·지역 기업간 협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용환 5급3특정책국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남),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천),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기북부)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리쇼어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유턴법’이라고도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2013년 제정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6개이던 유턴기업 숫자는 2022년 24개, 2023년 22개에서 지난 2024년에는 20개까지 줄었다.

이처럼 리쇼어링 기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해외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리쇼어링의 종류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

장을 신설·증설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 사업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다 이를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선 해외 투자도 회수하고 국내 신규투자도 이뤄지는 ‘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 경

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 투자 등 직접적 효과가 없는 리쇼어링 유형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 생산기반이 늘고 특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외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등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지원에서 대규모·중장기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자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입(세제), 업종유지 요건 적용 제외(기업승계)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방 산업단지 슬럼화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 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로 바꾸면 산단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바이오·AI·딥테크 분야, 한일 혁신거점 협력 확대

노동성 중기부 1차관, 日 방문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  
산업·외교부와 대미 진출기업 간담회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일본 추가 진출 지원에 나섰다.

미국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입국 및 체류시 애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도 추가로 조성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동성 제1차관은 한·일 정상 서를 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방일 행사로 이날 일본 후지사와에 위치한 쇼난 아이파크(I-Park)와 도쿄에 있는 캠프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를 잇따라 시찰하

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양국 추가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한·일 스타트업 협력은 양국의 경제안보·과학기술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바이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분야별 한·일 혁신거점 간 협력을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최고경영자(CEO)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조성 중인 ‘K-바이

오랩허브’와 쇼난 I-Park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쇼난 I-Park는 일본의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가 만든 개방형 혁신거점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진출해 일본 제약사, 글로벌 기업 등과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와 쇼난 I-Park는 지난 2023년 11월 업무협약 체결했고 현재 충북 글로벌혁신특구 해외실증 지원으로 한국 벤처 10개사가 입주 중이다. 양측은 K-바이오랩허브 완공 전인 2028년 하반기까지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완공 후에는 상호 장비·입주공간 공유 등 협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노 차관은 “쇼난 I-Park는 한·일 바

이오 협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라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동 R&D와 사업화로 연결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노 차관은 CIC 도쿄에서 팀 로우 CIC 대표와 서울 흥대 일대에 구축 중인 ‘K-스타트허브(K-StartHub)’와 CIC 간 협력을 의논했다.

CIC 도쿄에는 지난 2024년 5월 K-스타트업센터가 개소했고 현재 국내 스타트업 24개사가 입주해 사무공간, 현지 대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등 사업 전반을 지원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사 현장개선 지원 진단·교육·컨설팅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은 해외 ESG 규제 강화와 공급망 실사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ESG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ESG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 홈쇼핑, 영광군 지역 우수제품 발굴·전국 판로 확대

TV홈쇼핑 방송·모바일 앱 활용  
방송편성·공동 프로모션 등 추진  
기획·마케팅 스케일업 멘토링 제공

홈쇼핑이 전남 영광군의 지역 우수제품 판로 확대에 나선다.

홈쇼핑은 지난 24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영광군과 지역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 영광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등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영광군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극



홈쇼핑은 전남 영광군과 농특산물 등 우수제품 발굴·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발굴하고 상품화 및 유통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홈쇼핑은 TV 홈쇼핑 방송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영광군 우수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며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스케

일업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방송 편성, 모바일 기획전, 공동 프로모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매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영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과 모바일 플랫폼을 연계한 판매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를 돕겠다”면서 “체계적인 멘토링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비건 매트리스 N32

### 내달 첫 ‘N32 데이’ 개최

전국 7개 매장서 럭키드로우 진행

비건 매트리스 N32가 오는 3월 2일 첫 ‘N32 데이’ 행사를 열고 전국에서 고객들을 만난다.

25일 시몬스에 따르면 N32 데이는 N32 플래그십 스토어인 N32 테라스와 N32 스튜디오 기흥점을 비롯해 ▲N32 현대백화점 판교점 ▲N32 신세계백화점 화점 센텀시티점 ▲N32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N32 아이파크몰 용산점 ▲N32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각각 진행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개 스토어에서 오후 3시 2분 열리는 ‘럭키드로우’다. /김승호 기자

# AIDC 특별법, '전력공급'이 쟁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AIDC 지원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PPA·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혜택 과기부 "과감한 제도적 지원 필요" 기후부 "전력수급·입지 불균형 분산에너지 특별법 내 운영해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쟁점은 세제나 인허가가 아니라, 전력 직접거래(PPA)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라는 '전력 족쇄'를 풀 수 있느냐다. 수도권 전력망 포화화 초대형 AI 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은 AI 인프라 경쟁의 속도를 가를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지원을 넘어,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라는 과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로 정의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은 기본이고, 가장 큰 병목 구간인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황정아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PPA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요금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전력 확보 문제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현행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정책 기로 이미지.

전력 시장 구조로는 수백 MW 단위의 AI 전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와 수요처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의 용량 제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나 PPA 특례를 특별법에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나 행정적 편의주의가 자칫 AI 인프라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에 신중한 것은 물리적인 전력 수급과 입지의 불균형 탓이다. 현재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향후 구축 예정 물량의 80%도 경기 용인과 판교 등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들은 AI 연구 인력 확보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이유로 '수도권 회귀 본능'을 보이지만,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송전망 확충은 주민 갈등

등과 인허가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사실상 수도권은 더 이상 대규모 전력을 수용할 수 없는 '전력 동맥경화'에 빠졌다. 미국과 일본이 GW급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발전소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으며 국가 차원의 공세를 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AI 인프라 전략'의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은 판교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추론 및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정예화하고, 영남권은 원전과 LNG 등 기저전원을 활용한 초대형 연산 거점으로,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대응 거점으로 특화하는 'AI 인벤토리'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울산에서는 LNG 냉열을 활용한 냉각 모델이, 전남 해남에서는 5GW급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번 특별법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황동현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법과 예산도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다가오는 MWC26

### SKT, 'A.X K1' 안전·신뢰성 검증한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A.X K1(에이엑스케이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26' 기간 중 열리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국내외 통신·AI 기업이 개발한 거대언어 모델(LLM)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차별적 응답 생성, 정보 침해 등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100명의 평가단이 AI 모델의 응답을 검증한다.

이번 행사는 GSMA와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가기업 셀렉트스타가 공동 주최한다. 3월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 행사장 내 텔런트 아레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외부 전문가가 AI 모델의 응답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 결과는 심사단을 통해 점수화되지만, 참여 기업 수나 최종 점수, 순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번 챌린지에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A.X K1을 출품한다. A.X K1은 모델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로, 최근 국가 차원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단계 평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 KT, 디지털 접목한 韓 외식문화 소개

프리미엄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 글로벌 시장에 소개

KT가 MWC26에서 프리미엄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광화문 직장인의 하루'를 콘셉트로, 한국의 외식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는 구상이다.

하이오더는 매장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년 5월 출시 이후 외식업을 넘어 호텔, 병원, 산후조리원, 레저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KT는 관람객이 하이오더 단말기를 직접 사용해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태블릿 화면에서 띄고치와 유자이드를 선택해 결제까지 완료하는 흐름을 구현해, 한국 매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주문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다.

하이오더는 13개 외국어를 지원해 외국인 고객도 직원 도움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면에서 즉시 언어 전환이 가능하며, 음식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언어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신메뉴 이미지를 즉시 제작·적용할 수 있고, 비건·알레르기 등 세부 옵션 설정 기능을 통해 주문 정확도를 높였다. 테이블 단에서 터치페이(분할 결제)가 가능한 기능도 제공해 단체 방문 시 편의성을 강화했다. /김서현 기자

### KT엠모바일 eSIM 데이터로밍

#### '모비' 할인 프로모션

간편등록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KT엠모바일은 통신사가 만든 eSIM 데이터 로밍 '모비(mobi)'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봄철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비는 지난해 12월 KT엠모바일이 선보인 eSIM 데이터 로밍 서비스다.

그간 eSIM 구매 후 등록 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활성화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은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모비는 이를 해소하고자 '간편등록' 기능을 전 단말기에 적용해 등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앱 내 '간편등록' 버튼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 네이버-경찰청, 통신금융사기 차단 강화

플랫폼 내 범죄시도 사전 차단

네이버와 경찰청이 플랫폼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확산 차단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네이버와 경찰청은 지난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인터넷 플랫폼으로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네이버는 자체 인공지능(AI)과 보안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3중 예방망'을 가동하며 경찰청의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한 최신 범죄 데이터를 네이버 밴드 등 플랫폼 스팸 필터링 AI에 학습시킨다. 기관·유명인 사칭 문구나 기망성 키워드가 포획된 범죄 의심 게시물이 작성되면



좌측부터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 신호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의 모습. /네이버

내부 기준에 따라 경고 팝업을 노출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또 112 신고 등을 통해 긴급 차단한 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해당 번호로 가입해 활동하는 계정을 즉시 이용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제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제공하는 최신 악성 앱 정보를 네이버앱, 네이버페이, 웹 브라우저 등 네이버 서비스 보안 모듈에 반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 오픈 AI, 고객상담 기술 고도화

'에이전틱 AICC' 공개 예정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오픈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차세대 고객 상담 솔루션 '에이전틱 AICC(Agentic AICC)'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객 발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에이전틱 AICC는 2025년 7월 LG유플러스와 오픈AI가 체결한 AICC 분야 협력 이후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다. 협력 과정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응답 속도 개선과 상담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술 고도화가 이뤄졌다.

에이전틱 AICC는 고객 발화를 구

칙에 대입하는 기존 룰 기반 상담과 달리,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특정 표현을 맞춰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언어로 문의할 수 있고, 상담 도중 질문 주제가 바뀌거나 복합 요청이 들어와도 대화 흐름을 유지한 채 응대가 가능하다.

이 솔루션에는 상담 우선순위와 절차를 AI가 판단하는 '플래닝' 기능도 적용됐다. 고객 요청을 분석해 상담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잘못된 응답이 생성되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기술이다.

이번 MWC 전시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시 학습에 반영하는 'Self-Evolving(자기 진화)' 개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서현 기자

#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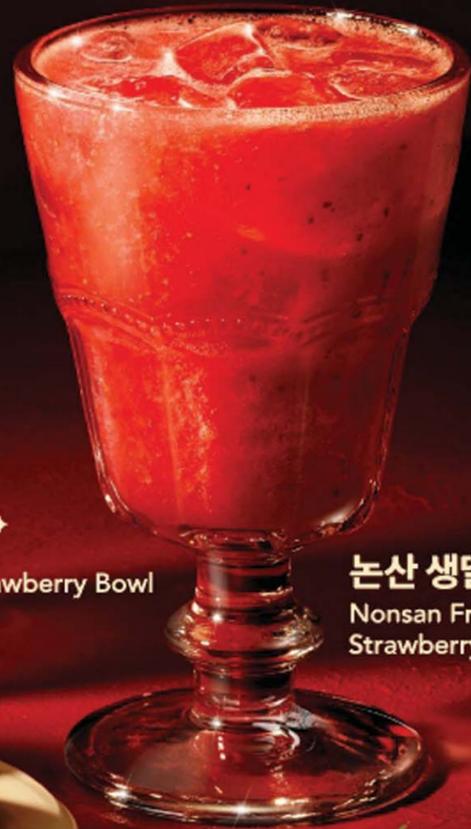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sup>★</sup>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 서울 車보험 손해율 5% 오른 93%... 전국대비 5%p 높아

### 자동차보험 현황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90%를 돌파했다. 2025년 서울 지역의 자동차보험(대인1·대인2·대물·자차) 손해율은 평균 92.88%로, 전년(87.65%) 대비 5.23%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평균도 웃돌았다. 전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7.58%였다. 서울보다 5.30%p 낮았다.

서울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90%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 2022년 87.35%, 2023년 85.58%, 2024년 87.65%로,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80%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손익분기점은 80%다. 손해율이 80%대를 넘어설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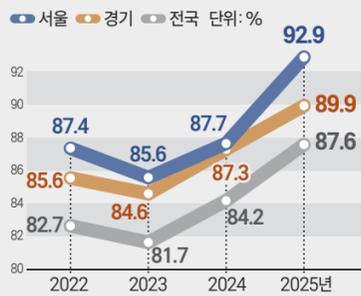
#### ◆ 서울 車보험 손해율 평균 92.88%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경기·전국 자동차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 평균은 92.88%였다. 구체적으로 대인I 손해율이 82.5%, 대인II 95.8%, 대물 102.7%, 자차 90.5%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승폭은 자차가 7.4%p로 가장 컸다. 대인II(6.8%p), 대물(4.9%p), 대인I(1.8%p)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증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전년 대비 1.77%p 감소한 뒤 2024년 2.07%p 상승하며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지난해 5.23%p로 급등하며 상승폭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국 손해율과의 역전 현상도 관측됐다. 전국 평균 손해율은 87.58%로, 서울

###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통상적 손해율 손익분기점 80% 넘어서면 손보사 수익성은 악화

車보험 가입차량 총 1903만대 국산 1601만대, 외제 302만대 서울에 전국 외제차의 22%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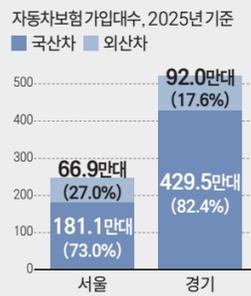
60대 차보험 부보대수 5.6% 증가 30·40대 가입자수는 1%대 감소

보다 5.30%p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의 대인I 손해율이 79.4%, 대인II 82.6%, 대물 93.7%, 자차 94.6%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대인·대물 평균 손해율이 서울보다 3.1%p~13.1%p 낮았다. 단, 전국 자차 평균 손해율은 서울보다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 평균 손해율은 89.93%를 기록했다. 대인I 손해율 78.8%, 대인II 88.0%, 대물 99.9%, 자차 93.0% 순이다. 경기권의 대인I과 자차의 손해율은 전국보다 낮은 반면, 대인II와 대물은 각각 5.4%p, 6.2%p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비교하면, 경기권 손해율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율 역시 대인I 기준 서울(5.3%)이 경기(4.9%)보다 높았다. 다만, 사고 1건당 손해액은 경기권이 399만9837원으로, 서울(387만5517원)보

### 지역별 국산·외산차



다 많았다. 경기 지역에서 대형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외제차 경기 집중도 서울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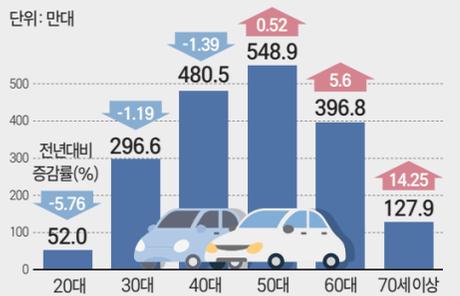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국 차량은 총 1902만9148대다. 이 가운데 국산 차량은 1600만9382대(84.13%), 외제차는 301만9766대(15.8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국산차가 181만1260대, 외제차가 66만8913대가 가입됐다. 전년 대비 국산차는 1만8538대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1만4782대 증가했다. 외제차로 갈아탄 수요가 많았던 셈이다. 경기의 경우 국산차가 429만5182대, 외제차가 91만9664대 등록됐다. 국산차와 외제차 모두 전년 대비 각각 4만7833대, 3만114대씩 증가했다.

서울에는 전국 외제차의 22.15%가 등록돼 있다. 경기의 경우 전국 외제차의 30.45%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외제차 비중이 높은 셈이다.

지난해 중형 차량 보험 가입률도 두드러졌다. 전국에 등록된 중형차는 583만1416대로 전년 대비 5만3014대(0.9%) 줄었다. 다인승 차량 감소율(0.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서울 중형차는 84만5982대 → 83만4461대(-1.36%)로 감

### 연령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소했다. 경기권에서는 159만2063대 → 158만6382대(-0.36%) 줄었다.

소형차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에 등록된 소형차 수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637만9954대 → 666만3159대 → 690만2037대로 지속 증가했다. 대형차 역시 지난해 421만7511대로 전년보다 3만6652대 증가했다.

#### ◆ 차보험 가입자, 60세 이상 늘고 3040 감소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0~69세 전국 자동차보험 부보대수는 396만8397대로 전년 대비 21만256대(5.59%) 증가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70세 이상은 127만8872대로 같은 기간 15만9479대(14.25%) 상승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단, 30·40대 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집중됐다. 40~49세 이하 자동차보험 부보대수는 480만4972대로 같은 기간 6만7988대(-1.39%) 감소했다. 30~39세 이하 연령대 역시 296만6413대로, 3만5690대(-1.19%) 줄어 들었다. 20~29세 이하는 52만3588대로 3만1278대(-5.67%) 감소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대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총 45만4630대로 집계됐

다. 전년 대비 2만1545대(4.52%)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68만8748대로, 같은 기간 3만38대(4.56%) 증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5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50대 부보대수는 68만2491대, 경기 지역에서는 148만811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전국, 경기권에서는 50대가 각각 85.8%, 87.7%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서울 지역에서는 70세 이상이 88.6%로 손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0~69세가 89.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의 손해율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손해율은 지난해 2024년 88.5%에서 지난해 88.6%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50대 손해율은 82.8%에서 89.4%로 크게 뛰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주 고객층으로 노려왔던 50대를 중심으로 리스크 구간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관리 및 요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이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은 1370만1790대로 전년보다 12만4626대 증가했다. 동시에 여성의 경우 532만7358대로 같은 기간 8만8985대 늘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이 관측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80만1676대로, 같은 기간 4884대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67만8497대로 같은 기간 1128대 증가했다.

손해율은 전국 기준 남성(87.7%)이 여성(92.9%)보다 5.2%p 낮았다. 서울 기준으로는 남성(90.9%)이 여성(99.8%)보다 8.9%p 낮았다. 경기권에서는 남성(90.1%)과 여성(96.5%)의 손해율 차이가 6.4%p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서울지역 생명·장기보험 가입률 ‘하락’... 경기도는 ‘상승’

###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황

서울·경기 생보 가입률 ‘동반 하락’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동반 상승’ 서울 생보 유지율 전국보다 높아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44)는 지난해 말 부모 간병비와 자녀 병원비가 겹치면서 가족 보험을 다시 점검했다. 기존에는 “실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컸지만, 실제 지출을 겪고 나니 질병·상해 보장과 생명보험 계약 유지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 상담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보험 가입·유지 흐름도 찾아봤다고 한다.

그는 “가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지가 더 현실적인 지표처럼 느껴졌다”며 “서울은 가입률이 최근 조정됐다는 얘기도 있지

만,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점에 눈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경기지역의 생명·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은 전년 대비 하락했고 경기도는 상승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두 지역 모두 생명보험 가입률은 악화되고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높아지는 공통 흐름을 보였다. 생명보험 유지율은 서울·경기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 ◆ 서울 ↓ 경기 ↑...전체 가입률 엇갈려

25일 메트로신문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서울·경기지역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생명·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3989만명, 가입률은 77.1%로 집계됐다. 서울은 가입자 721만명, 가입률 76.8%로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p) 낮았다. 경기도는 가입자 1050만명, 가입률 75.8%였다.

특히 전년과 비교한 흐름이 갈렸다. 서울 가입률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6.8%로 1.8%p 낮아졌지만, 경기도는 같은 기간 75.4%에서 75.8%로 0.4%p 상승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가입 흐름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기존 흐름이 유지됐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 가입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2024년 기준 서울은 남성 76.3%·여성 77.3%, 경기도는 남성 74.3%·여성 77.3%, 전국은 남성 76.2%·여성 77.9%로 나타났다.

#### ◆ 종목별 ‘생보 악화·장기손보 강화’

전체 가입률의 방향이 서울과 경기에서 달랐다면, 종목별 흐름은 오히려 비슷했다. 서울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2023년 65.3%에서 2024년 60.7%로 4.6%p 하락한 반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58.3%에서 58.7%로 0.4%p 상승했다. 서울 전체 가입률 하락 배경에 생명보험

가입률 조정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경기지역도 같은 방향이었다. 생명보험 가입률은 57.0%에서 56.9%로 소폭 낮아졌고,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64.4%에서 65.5%로 1.1%p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생명보험 가입률은 59.0%로 보험,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64.0%에서 64.9%로 상승해 ‘생보 정체·장기손보 확대’ 흐름이 확인된다.

지역 구조 차이도 분명했다. 서울은 2024년에도 생명보험 가입률(60.7%)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58.7%)보다 높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이외 지역은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더 높았다. 보험개발원도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종목별 가입률 구조가 다르다고 짚었다.

◆ 유지율은 서울·경기 모두 전국 상위 생명보험 유지율의 경우 서울은 13회차 유지율(87.8%)이 전국 평균(87.4%)보다 높고, 회차가 경과할수록 그 차이가 벌어

졌다. 경기 역시 서울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24년말 기준 생명보험 유지율은 서울 ▲13회차 87.8% ▲24회차 71.4% ▲37회차 63.5% ▲49회차 57.2% ▲61회차 47.4%였다. 경기도는 ▲87.5% ▲71.7% ▲63.1% ▲56.6% ▲46.4%로 집계됐다. 전국은 ▲87.4% ▲71.1% ▲62.5% ▲55.7% ▲45.7%로, 서울·경기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의 상대 우위가 장기회차로 갈수록 더 뚜렷했다.

연령별로는 61회차 기준 20대 유지율이 가장 낮고, 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대 42.1% ▲9세 이하 66.3%, 경기도는 ▲20대 41.5% ▲9세 이하 61.1%, 전국은 ▲20대 40.9% ▲9세 이하 60.5%로 집계됐다. 사회초년층의 보험 유지 부담과 아동 보장 계약의 상대적 유지 특성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셈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보험업계, 온·오프라인 사회안전망 확장 극단적선택 등 예방 중심 사업운영·지원

## 생보사 사회적 문제 대응

우리나라의 극단적선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한강 교량 SOS 생명의전화 운영부터 극단적선택 시도자·유족 지원, 청소년·청년 상담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극단적선택 예방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25일 보험업계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공동 극단적선택 예방 사업에 연평균 33억4000만 원을 투입하고 온·오프라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단적선택 예방사업 연평균 33억 투입 한강 20개 교량 SOS 전화기 설치·운영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지원 확대

### ◆ 하루 평균 40명 극단적 선택... 생보협회 "사회적 문제"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극단적선택은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 수준이다. 10만명당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생보협회는 "한국사회에서도 극단적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수 없다"며 "어느 한 사람,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장기간 자살예방 사업을 공동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33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 자살 고위험군, 고립청년(은플이)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생보업계 공동 극단적선택 예방사업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즉시 연결되는 대응체계다. 업계는 한강 20개 교량에 SOS 생명의전

## 생보사 주요 자살예방 활동



생명존중 자살예방 문화조성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의 심각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 참가자(러버커) 3,000인과 함께 GOWALK  
- 학교 정문에서 퍼포먼스 인증 진행 - 전국 인증 기간 내 걸음 실천 인증(7.1km)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 리더 '라이키'를 양성하여 마음보호훈련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 학생 개개인의 보호요인 강화 및 교내 생명존중 가치 확산, 온라인 상담 채널 '라임' 운영



마음이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라이키(LIFE KEY) 프로젝트

- 라이키 스쿨링 운영 - 마음보호훈련 및 생명존중 캠페인 진행  
- 전국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교사연수 및 교사대상 공모전 운영



청소년 SNS 상담 '라임' 운영

-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운영  
- 심리검사, 감정일기 등 부가 기능 운영 / 위기관리 및 사후관리



은둔고립 청년들이 온·오프라인 상의 자조활동 및 일상생활 기술훈련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 인식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기반 마련



은둔고립 청년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 일경험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거나 산만한 은둔고립 청년들에게 적합한 분야에서 일 경험 지원  
- 경제선지능·ADHD 등으로 직업적응이 느리고, 과업완성도 낮은 은둔고립 청년 대상



청소년 생명존중 지도자 협정교육 파견

- 청소년 생명존중 지도자 보수교육 및 관리  
- 청소년 생명존중 신규 지도자 양성 - 또래 청소년 생명존중 지도자 양성

하기 7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긴급 전화상담 1만42명, 119 출동 및 연계 구조 2265명을 기록했다.

극단적선택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회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협약병원 88개소를 통한 응급실 기반 지원으로 201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극단적선택 시도자 5525명을 지원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같은 기간 극단적선택 유족 3259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협회는 이를 극단적선택 재시도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안전망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상담 채널도 확대됐다. 극단적선택 예방 SNS 상담시스템 '마들렌'은 전용

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개 채널을 통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도입 이후 누적 상담건수는 7921건이다. 대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까지 포함해 상담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 ◆ 청소년·청년 등 예방 초점

생보업계는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 대응을 위해 SNS·카카오톡·문자메시지 기반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단순 상담을 넘어 또래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까지 병행하고 있다.

세부 실적을 보면 청소년 상담 종합시스템 '다들어줄게'는 2018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고민상담 36만1049건을 기록했다. '힐링톡톡' 멘토링은 2023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청소년 25만5970명, 멘토링 4717건을 지원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디지털 캠페인 '감정가게'는 같은 기간 청소년 182만3066명 참여, 감정카드 교류 18만3298건으로 집계됐다.

법·제도 개선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2018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살예방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뒷받침한다.

### 한화생명 극단적선택예방 '함께 고워크' 삼성생명 생명의 전화 '청소년 존중사업' 교보생명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개별 생보사 역시 청소년 생명존중, 상담, 고립청년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은 극단적선택예방캠페인 '함께 고워크' 사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조성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생명의 전화 '청소년 존중사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 리더 '라이키'를 양성하고 마음보호훈련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생 개개인의 보호요인 강화 및 교내 생명존중 가치 확산, 온라인 상담채널 '라임'도 운영한다.

교보생명은 '두더지잡 (Do the Job)',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은둔고립 청년들이 온·오프라인 상의 자조활동 및 일상생활 기술훈련 및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 인식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 “노후 준비 핵심은 ‘현금흐름’… ‘우물 자산’ 구조 만들어야”

## 월급형 수익구조 전환 로드맵

김 동 업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

공적연금·주택연금·퇴직급여로 ‘돈길’ 설계  
부부 ‘연금 맞벌이’ 1순위… 각자 연금확보  
주택연금 사실상 대출, 복리구조, 개시 신중  
퇴직금은 IRP·연금저축으로 옮겨 연금 수령  
배우자 유고 대비, 유족연금 선택·종신보험 점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 관리 방법은 곳간 형태의 자산이 아니고 우물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게 월급처럼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주최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1’에서 노후 자산 유동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은퇴자들은 공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연금 맞벌이 구조 확립해야”

김 본부장은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맞벌이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재정을 합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다. 연금 맞벌이는 맞벌이부부가 연금을 각자 운용해 따로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 김 본부장은 “40대, 50대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한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맞벌이하면 부부가 재정을 합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저축한 뒤, 집 사고 같이 자산 관리했는데 요즘 맞벌이의 특징은 부부가 돈을 합치지 않는다”며 최근 부부들의 자산 운용 추세를 짚었다.

그러면서 “월급도 각자 쓰던 사람이 은퇴하면 연금을 합칠 확률은 높지 않다”며 “연금과 배우자 연금이 각각 준비하는 것들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삶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 연금, 배우자 연금을 합쳐서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자산규모가 가장 큰 ‘집’ 활용

김 본부장은 은퇴자들의 우물 형태 자산 구조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 활용법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2억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용에도 주의할 점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곳간’이 아닌 ‘우물’처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 표현한 이미지.

이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은 연금이라 쓰고, 읽을 때 대출이라 읽는다”라며 주택연금의 복리 구조를 짚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이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누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정산된다.

투자에 복리가 붙으면 자산이 불어나지만, 대출에 복리가 붙으면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를 고려해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 개시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본부장은 “만일 금융자산도 있고 집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다면 주택연금을 바로 개시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시 시기를 조금 늦추고 금융자산부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주택 시장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퇴직급여로 배우는 소득 공백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퇴직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 시기에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김 본부장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데, 이때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해 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준다”면서 “세금도 감면받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 소득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다 써버리거나 연금저축으로 부어놓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소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 ◆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종신보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수급 1순위는 배우자이며,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해,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연금에 더해준다.

종신보험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본부장은 “보험이라는 게 작으면 몇 천 만원에서 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경미 사고는 ‘사진 먼저, 차는 바로 이동’… 2차 사고 막는 대처법

## 도로 위 손해 줄이는 3원칙

이 응 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팀 팀장

고장 시 보험사 24시간 긴급출동 확인  
특약 없으면 고속도로 무상견인 활용  
다툼엔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 체크  
위험하면 촬영보다 안전이동 등 우선  
부상 땀 119… 현장 이탈엔 뺑소니 주의



개인용 승용차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보험은 단순 가입 의무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다만, 보험은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멈췄을 때, 과실 비율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꼭 알아둘 핵심을 정리해 본다.

### ◆ 차 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먼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 “사고 현장에서 차를 먼저 빼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 출동을 기다리며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정답은

‘현장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다. 비상등을 켜 뒤 휴대폰으로 두 차량의 접촉부위, 차선 위 차량 위치가 보이도록 전체 구도를 촬영하고(가능하면 신호 상태, 진행 방향도 함께), 필요하다면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 위치를 표시한 다음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현장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2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긴 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 뒤쪽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장소와 충격 부위, 타이어 자국 등 진행 궤적을



/유투이미지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고속도로·야간·시야 불량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촬영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신속한 이동과 경찰 신고가 더 현명할 수 있다.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황한 나머지 구조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 ◆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 장기 미운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장시간 정제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되므로, 본인 보험에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특약이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지대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 과실 비율이 궁금할 땐 과실비율정보포털

마지막으로 사고 후 가장 민감한 주제인 과실 비율이다. ‘내가 억울하다’라

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기준을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만든 국내 유일의 공식 인정 기준을 영상·그림·도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실 비율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사자끼리 감정싸움을 하기 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하면 좋다. 또한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도 활용할 수 있다.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공평 타당한 과실 비율 합의안을 제시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도로 위에서의 선택이 손해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한다. 경미 사고는 ‘사진 찍고, 안전 이동은 바로’, 갑작스러운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 과실 비율은 ‘공식 포털로 기준 확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운전은 물론, 현실적인 대처 방법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운전 습관이라 할 것이다.

/안재선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

## 암 치료기술 발전 맞춘 특약 신설

### 삼성생명

암·순환계질환 치료 핵심보장 하나로 실제 치료 여정 기준 통합보장 확대

삼성생명이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 과정 전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한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를 개정 출시했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실제 치료 여정을 기준으로 통합 보장을 확대하고, 최신 의료기술 관련 특약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상품은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에 필요한 핵심 보장을 하나의 구조로 묶었다. 새로 마련한 ‘암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영상·정밀검사, 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통증완화치료, 재활치료 등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비급여 치료 부담을 겨냥한 보장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은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을 통해 로봇수술, 일부 표적·면역 항암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등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영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혈관·심장질환 등 순환계질환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

해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 혈전제거술, 중환자실 치료, 재활치료 등을 보장하는 ‘주요순환계질환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도 마련했다.

최신 암 치료기술 확산에 대응한 특약도 눈에 띈다. 최근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선 리간드 치료’ 등 신의료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표적항암약물·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특약’을 신설해 고액 비급여 항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납입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삼성생명

## 「The퍼스트 건강보험S」

- ✓ 치료 과정 통합 보장 강화
- ✓ 방사선 리간드 치료 등 최신 의료기술 보장

삼성생명

###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 암·뇌·심장부터 최신 치료까지 담아

### 한화생명

분산된 건강보험 라인업, 하나로 통합 13단계 세분화로 다양한 가입유형 제공

한화생명이 암·뇌·심장 진단부터 최신 치료까지 주요 보장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새해 첫 상품으로 선보였다. 보장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건강보험 라인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번의 설계로 종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고객 건강상태와 보장 선호에 맞춘 13단계로 세분화해 유병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이 가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이후에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유리한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최대 11회까지 유형 조정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최초 대비 약 5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납입면제 범위와 치료비 지원 기능도 넓혔다. 암·뇌졸중·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등 12대 질병까지 범위를 확대한 납입면제형을 갖췄다.

암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 과정에서 수술 일정이 확정되면 가입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하는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를 넣어 치료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의료 환경을 반영한 특약 구성도 눈



한화생명

### 한화생명

##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한화생명

에 띈다. 수술 보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근골격계 다빈도 수술 보장 특약 등 척추·관절 질환 관련 특약을 함께 구성해 실제 치료 과정에 맞춘 선택지를 넓혔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장 특약과 암주요치료,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보장 특약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장별로 분산된 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입유형을 세분화해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 ‘교보3밸런스보장보험PLUS(무배당)’

## 건강·사망·노후 생애주기 맞춤 설계

### KYOBO 교보생명

치료비, 보험료 면제, 연금전환 담아 3대 질환 외에도 치매 관련 보장 강화

교보생명이 사망보장에 3대질환 치료비와 노후 연금 기능을 결합한 종신보험 ‘교보 3밸런스보장보험PLUS(무배당)’를 선보였다. 건강·사망·노후를 생애주기에 맞춰 한 상품으로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평생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치료비 보장, 보험료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 기능을 함께 담았다. 종신보험의 보장 영역을 사망 중심에서 치료·노후까지 확장한 구조다.

특히 보험료 납입완료 후 암 또는 2대질환(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주요치료 시마다 가입종형에 따라 가입금액의 30%(1형) 또는 20%(2형·3형)를 최

대 10년간 반복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는 암 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를, 2대 질환 주요치료는 수술·혈전용해치료·중환자실 치료 등을 포함한다.

치매 관련 보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3형 가입 시 3대질환 주요치료비 외에도 치매검사, 치매약물치료(급여), 최경도 치매 및 경도알츠하이머 표적치매약물치료 등에 대해 주계약 가입금액 기준 일정 금액을 치료비로 보장한다. 암·특정뇌혈관질환·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유지된다.

노후보장 기능도 담았다. 납입기간(5·7년 납은 10년) 이후에는 3대질환 주요치료비 보장을 유지한 채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전환 이후 3대질환 진단 시 10년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췄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은 일반형보다 적은 대신 동일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주형 기자



3대질환 보장으로 더욱 든든한

## 교보3밸런스 보장보험PLUS (무배당)



##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 기본연금 3배... 질병 後 부담 줄인다

### 신한라이프

3대질병 중심 생애주기 맞춤 보장 질병 진단 시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

신한라이프가 사망보장에 3대질병 치료비, 간병, 노후 연금 기능까지 결합한 종신보험 신상품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선보였다. 한국인에게 발병 비중이 높은 3대질병을 중심으로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보장 구조를 강화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과 질병 치료비는 물론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3대질병 진단 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구조를 담아 종신보험의 기능을 확장했다.

주계약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또는 50% 이상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 인사용입원(2형 한정)을 새롭게 보장하도록 했다.

노후보장 기능도 강화했다. ‘3대질병연금 전환특약’의 연금전환 조건을 충족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특약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이 확정되면 10년간 매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질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간병·생활비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형 일반심사형 기준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10년납·20년납(2형은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간편심사형은 3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1형은 최대 70세, 2형은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



‘365년간 해외여행보험’

여행취소 위약금, 횡수 제한 없이 보장



한 번 가입으로 1년 동안 혜택

삼성화재가 ‘365년간 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 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365년간 해외여행보험은 한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횡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간형 상품이다. 출장이나 단기 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이번 여행취소 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 숙박

권, 체험권 등의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장한다. 최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업계 최초로 국내 출발 항공기 지연 지수형 담보를 출시했으며, 9월에는 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담보 신설은 고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보장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

화재 보험료 전액 경기도 시군 부담



취약계층 건물·가재도구 등 피해 보상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총 1년이다. 화재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여러 항목을 지원한다. ▲주택 건물 피해보상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보상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당 2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

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 금융의 한 형태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경기도가 100% 지원!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가입대상 및 기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5.12.18. ~ 2026.12.17. / 1년간)  
보험가입 혜택  
재물위험 건물 3,000만원 한도 가재도구 700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대물)위험 사고당 1억원 한도  
임시거주비 200만원 한도 (1일당 20만원)  
24시간 사고접수센터  
1660-1039  
02-6455-4833  
plan24@plan24ins.co.kr  
카카오톡: 플랜이심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문의) 생활안전담당관 도민안전지원팀 | 031-231-0371-2

DB손해보험 · 펫닥 업무협약식

일시: 2026년 2월 10일 (화) 장소: DB금융센터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

포포즈와 펫장례문화·보험 확산 협력



공동 캠페인 추진 등 올바른 문화 정착

DB손해보험이 ‘펫닥’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운영사 ‘포포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를 출시한다.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는 DB손해보험 펫보험 가입 고객 및 반려동물 양육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포포즈 장례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화 꽃장식 쿠폰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DB손해보험의 애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쿠폰 제공 및 사용 방식 및 적용 조건 등

상세 내용은 DB손해보험 앱 펫전용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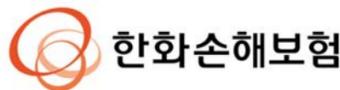
한편,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바른 펫 장례문화 전파 ▲펫보험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반려가족이 장례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도 고객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올바른 펫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

임신지원금,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임신·출산 관련 보장 강화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위험을 겨냥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을 출시하며 여성특화보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난임·임신·출산·산후관리부터 여성 고유질환, 정신건강, 사회적 위험 이후 법률비용 부담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여성보험 시장 내 차별화를 이어나간다.

이번 4.0의 핵심은 보장 영역의 확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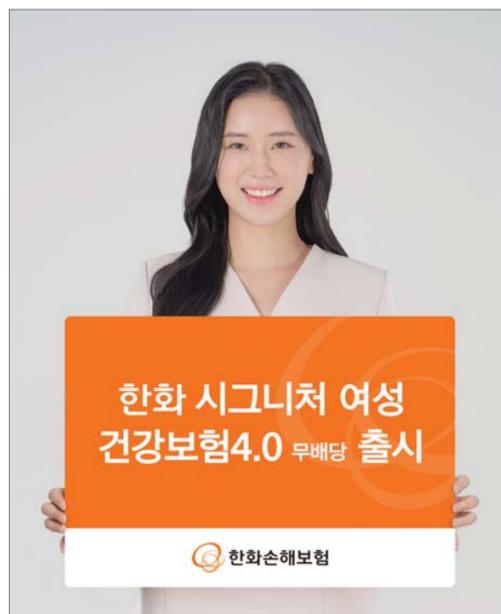
다. 업계 최초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를 마련해 이혼소송 시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레이디(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보장, 여성 고유질환(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 질환) 중심 통합 치료비 보장도 담았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임신 단계에서 1회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특약을 도입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지원금(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 외에 산후조리원 비용, 입원 중 자녀돌봄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 가운데 임신지원금 특약은 손해보험업계 장기손해보험 영역 최초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 예정으로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도 각각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여성 고객의 생애주기별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소송비용 결정서 따라 출석비용 지급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까지 보장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

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한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해당 특약은 이러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약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엠 하우스(M-House)’, ‘메리츠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퇴직연금 ‘보증형실적배당보험’

가입자 선택지 확대... 20년 정액 지급



‘MVP펀드’ 연금 수령기까지 활용

미래에셋생명이 은퇴 후 연금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를 겨냥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개인형IRP 상품을 선보였다. 올해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보증형실적배당보험’을 출시해 연금 수령 방식 선택권을 넓혔다.

이번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은퇴자층의 수요를 겨냥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은퇴 후 연금 투자에서 투자 위험, 기대 수익률, 관리 편의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에 맞춰 상품을 설계했다.

미래에셋생명 개인형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은 50세 이상 고객이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20년) 동안 정액 지급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통한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연금전환특약 중심이었다면, 이번 상품으로 ‘보증형실적배당보험’ 방식이 추가되면서 가입자 선택폭이 확대됐다.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일임형 자산배분펀드인 ‘MVP펀드’를 연금 수령기까지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24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에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담았다.

특히 보장된 인출 구조와 전문가의 글로벌 자산 운용을 결합한 ‘스마트한 은퇴자산 인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적 보증, 전문가 운용, 글로벌 분산투자, 성과 연동 등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은퇴 생활에서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주형 기자



‘스텝업700 NH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최대 30년·700% 체증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증가

NH농협생명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의 종신보험 신상품 ‘스텝업700 NH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장기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 이해도를 높인 점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하나로 고정해 보장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망보험금은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최대 30년간 체증돼 가입 시점 대비 최대 700%까지 보장하는 초체증형 구조를 갖췄다. NH농협생명은

장기 보장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보장 강도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 활용도를 높인 특약도 포함됐다. ‘전환용 사랑이음NH종신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의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해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가족 보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으로, 가입 연령은 일반가입 기준 남성만 15세~62세, 여성만 15세~67세다.

NH농협생명은 “장기 보장을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보장 구조는 강화하고 상품 구성은 단순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365일간병인보험’

간병인 입원일당 365일까지 보장



하루 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은 간병비 부담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NH365일간병인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간병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간병인 입원일당의 보장 기간을 기존 180일 한도에서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 점이다. 간병인 사용 일수에 따라 가입 금액 기준 하루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장기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실제 지출한 간병인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입원지원비’ 담보도 탑재했다. 연간 간병인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가입 금액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액형 보장에 실제 비용 보전 기능을 더해 장기 간병에 따른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심사형도 운영된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85세까지, 보

장은 최대 100세까지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10년·15년·20년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전국 지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FC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준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고령화로 부모 간병을 미리 준비하려는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장기 간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는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대한홍삼(주)

#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박현주식 화끈한 주주환원... 미래에셋증권 시총 40조 돌파

역대 최대 6354억 주주환원 발표 실적 기대에 금융권 시총 빅4 등극 AI 격변기 맞아 전략 전환 공식화



미래에셋증권 전경. 작은 사진은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책임자(GSO)의 화끈한 주주환원과 앞을 내다본 투자 해안이 미래에셋증권을 금융권 시총액 '빅4' 자리에 올려놨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46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X)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회 상장 통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 회장은 "투자의 세계에서 안주는 곧 퇴보"라며 "가장 먼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감하게 기회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의 성장은 숫자에 그쳐서는 안되며,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객의 노후를 지키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미래에셋증권 시총 '빅4'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대비 5800원(8.64%) 오른 7만2900원을 기록했다. 시총액은 약 41조원을 돌파했고, 국내 시총액 20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보다 시총이 높은 곳은 10위 KB금융(62조원), 15위 삼성생명(49조원), 16위 신한지주(48조원)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과 지난달에 각각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시총을 추월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날 미래에셋증권은 460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소각한 금액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 수준인 6354억원의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정된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기준 300원),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기준 500원 상당 주식)으로 총 4653억원이다. 이는 이사회 전일 증가 기준으로 지난해 현금 배당액 1467억원 대비 세 배 이상 규모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실적 가운데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주 약 1177만주, 2우선주 약 18만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보통주 및 우선주 약 405만주 등을 소각한 금액까지 합산하면 약 170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2025 사업연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약 6354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약 1조5000억원을 감안했을 때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다.

블룸버그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상승이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만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함께 증권업 실적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펀더멘털과 투자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 기대 역시 증권주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SpaceX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회 투자 통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SpaceX 기업공개(IPO) 등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Space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 등에 총 4억달러(약 5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SpaceX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 기업가치는 약 1조2500억달러(약 180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 ◆박현주 회장 "AI와 함께 미래연다"

박현주 글로벌전략책임자(GSO)는 올해 인공지능(AI) 격변기를 맞아 '제2의 창업'에 준하는 전략 전환을 공식화했다. 자산의 토큰화, AI 기반 자산운용 플랫폼, 이익의 재투자를 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박 GSO는 올해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파른 변곡점에 있다"며 "자본이 아닌 AI 지능이 생산성을 독점하는 '생산성의 비대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와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 방식의 성실함이나 관성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다.

그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미래에셋의 '제2의 창업'을 이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자산의 토큰화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완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출발점으로,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모든 투자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연결해 글로벌 투자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거점에서 리테일 고객 전용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축은 미국 웰스팩(Wealthspot)의 AI 운용 역량과 미래에셋의 글로벌 플랫폼 결합이다. 박 GSO는 웰스팩이 축적한 AI 기반 운용 지능이 플랫폼과 결합될 경우 미래에셋이 '디지털 자산운용 그룹'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X(Global X) ETF는 이러한 혁신 전략을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유통 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박 GSO는 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글로벌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다. 박 GSO는 향후 5년간 그룹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억달러 규모의 영업이익과 투자 회수 자금을 미래 성장 동력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유기적 성장을 병행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슈퍼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 지급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

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익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익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익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

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잡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임종석 신영증권 회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정호 대표이사(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장기근속 대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영증권

## 신영증권, '신뢰 중심 경영'으로 새 도약

창립 70주년 슬로건 '종심'

창립 70주년을 맞은 신영증권이 지난 70년간 이어온 '신뢰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56년 설립된 신영증권은 '고객의 신뢰가 곧 번영의 근간'이라는 '신즉근영(信則根榮)'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주력해왔다. 1971년 현 경영진이 인수한 이후에는 55년째 연속 흑자와 배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 속에서 꾸준히 주주 환원을 실천해왔다.

신영증권은 창립 70주년인 올해의 슬로건으로 '종심(從心)'을 선정했다. '종심(從心)'은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로, 70세에 이르면 마음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

영증권은 단순히 업력을 기리는 것을 넘어, 지난 70년간 쌓아온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正道(正道)를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은 별도 대외 행사 없이 임직원들이 함께 회사 역사와 향후 백년을 이어 지켜 나갈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직원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신영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자랑스런 신영인상'은 수익, 혁신, 기업이미지, 조직문화, 윤리, 라이징스타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됐다. 수익 부문에서는 우수한 시장 대응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해 낸 파생전략운용부, ESS부, FICC본부, WM사업본부 등 4개 부서 및 본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 메리츠증권, 수소기업 '미코파워' 400억 투자

국내 유일 SOFC 원천기술 보유

메리츠증권은 신기술금융회사 AFWP(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수소 연료전지 기업 미코파워에 400억원을 투자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코파워는 국내 유일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전 공정 원천기술 보유 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블룸에너지 등 약 5개 업체가 상용화 가능한 SOFC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코파워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발전용 SOFC 설비

의 국산화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며, 정부 주도 신재생프로젝트에 잇따라 참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열과 전기를 활용할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수전해기(SOEC)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돼 100킬로와트(kW)급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실증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하은 기자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4번째), 구자용 E1 회장(왼쪽에서 5번째)과 양사 관계자들이 신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 동서발전-E1,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신규사업 공동추진·협력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4일 울산 본사에서 E1과 신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양사가 이어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수도권 신규 집단에너지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규 집단에너지사업 공동개발 및 건설·운영 ▲기타 발전사업 기회 발굴 협력 ▲사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과정에서 양사의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결합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1은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업 기반을 보유한 종합 에너지기업이다. 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안정적 사업 기반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양사의 운영 노하우와 재무·사업 역량이 결합될 경우 수도권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 귀농·귀촌가구 72% “농촌 생활 만족”

농식품부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 5년차 평균소득, 전체농가 65%

귀농·귀촌 가구 70% 이상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귀농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소득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귀농 유형은 농촌 출생 후 도시 생활을 거쳐 연구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U자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귀촌의 경우, 도시 출생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I자형이 48.7%로 많았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귀농가구의 71.9%, 귀촌가구의 72.0%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는 응답도

귀농가구 75.5%, 귀촌가구 54.5%로 집계됐다. 또 귀농가구의 97.0%, 귀촌가구의 86.3%가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33.3%), 기업승계(21.7%),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13.5%) 등을 꼽았다.

소득은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첫째 2534만 원에서 5년 차 3300만 원으로 30.2% 늘었고, 귀촌가구는 3853만 원에서 4215만 원으로 9.4% 늘었다.

다만 귀농 5년 차 평균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소득인 5060만 원의 65.2%에 머물렀다. 귀농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경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농 경력도 짧기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협, 가축질병에 드론·광역살포기 투입

농기계은행 보유 방제자원 활용

농협은 최근 가축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계은행사업용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에 대한 대응이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임직원은 지난 19일 전북 익산 관내 농협이 운영하는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동원해 경기 평택 일대의 축사 주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기계은행이 보유한 방제 자원까지 활용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해 운전자를 채용,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책임운영 방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247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무인헬기 171대 ▲드론 770대 ▲광역살포기 76대 등 총 1017대의 첨단 방제 장비를 운용 중이다.

이들 장비를 활용한 작년 방제 작업 규모는 총 48만 10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번기 적기방제를 통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병해충 및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서부발전, ‘에너지 전환 1호’ 가동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돌입

석탄화력 → 천연가스 복합화력  
정부 탈탄소 전략 맞춘 첫 연료전환  
구미시 전력 자립률, 환경성 개선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첫 석탄화력 대체 연료전환 사업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따른 ‘에너지 전환 1호’ 사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석탄화력 대체 프로젝트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석탄화력인 태안 1호기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전환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정부의 탈탄소 전략에 발맞춰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첫 연료전환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38개월간의 공사를 거친 발전소는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상업운전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구미천연가스 발전소 전경. /서부발전

설비용량은 500메가와트(MW) 규모로,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전력 수요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도 대폭 개선됐다. 최신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크게 낮췄다. 건설 기간 중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부발전은 경북 철곡 복합에서 구미까지 21.5km에 달하는 장거리 천

연가스 배관망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설 투자비와 운영·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중부투자를 방지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은 건설 일정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공정위, 산업안전 비용전가 건설사 4곳 확인

하도급법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송부  
원사업자 부담 비용·책임 전가 우려  
경쟁입찰 과정서 위반행위 적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체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이하 피심인들)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 또는 책임 부담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금 지급을 일체 불가하도록 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으로 봤다.

기타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법정 기한(공사 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결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위반금액 산정

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025년 들어 건설현장에서 4건의 산업재해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도 접수되면서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내용을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구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토대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책임·비용 전가 관행을 시정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M I/T, F, E



#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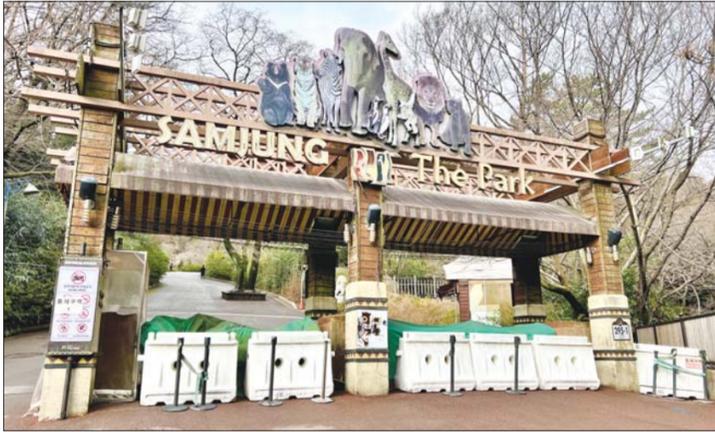
#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내년 공립체제로 재개장

부산시, 약 478억 매매계약 예정 제1회 추경에 운영비 75억 편성 '생명존중 동물원'으로 비전 설정

부산시는 부산에서 유일한 동물원인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삼정더파크)'을 인수하여 공립동물원 체제로 전환 2027년 재개장하기로 했다.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민간 운영을 공공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부산진구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광역시에 걸맞는 뛰어난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4월15일 478억2500만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 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정더파크.

새로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은 정비를 거쳐 2027년 정식 개장한다. 규모는 8만5334㎡로 현재 동물 115종 443개체가 있으며 추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비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활용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으로 단계적으로 재구성한다.

노후 동물사부터 동물복지와 행동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고,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고려한 서식 공간 재배치

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했던 시절 비싼 입장료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을 추진한다. 거점 동물원은 권역 내 동물원과 수족관을 지원하고

중 보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현재 전국 4개 권역 가운데 청주동물원과 우치동물원 2곳만 지정돼 있다.

시는 권역 내 동물원의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중 보전·중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지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동물 교류 체계 마련과 표준 운영 매뉴얼 수립, 전문 인력 단계적 확충도 추진한다.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동물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해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10월까지 중장기 운영 방향과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4월15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해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며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주시

#### 20대 결혼 혼수비용 지원

경주시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준2'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초기 결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18세 이상 29세 이하 신혼부부다.

/경주(경북)=김진권 기자

### 산청군

#### 1박 여행객에 인센티브 제공

산청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관광객에게 여행 인센티브를 제공해 침체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1일 출발 여행 건부터 적용되며 인센티브 신청은 여행 시작일 기준 2일 전까지 미리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관광객 2인 이상이 산청군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숙박 1박 이상, 식당 1식 이상 이용, 지정 관광지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영양군

#### 'K-브랜드 어워즈' 행정혁신도시

영양군은 25일 '2026 K-브랜드 어워즈'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양군의 선제적 정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그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균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2조 6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며 ▲지원금 936억원 확보 ▲연간 14억원의 지방세 증대 ▲15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진주시

####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진주시가 올해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8월 전국펜싱선수권대회, 10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까지 굵직한 대회를 줄줄이 치른다.

올해 최대 관심 대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충남도, 하루 1000kg 수소충전소 가동

### 도내 14번째 수소충전시설 운영 차량 160대, 버스 40대 충전 규모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수소교통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24일 보령시 대천동 공영 버스차고지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교통 복합기지(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도내 14번째 수소충전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 거점에 대응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주차장, 세차장 등을 갖춘 종합형 충전 기반시설로,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보령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과 안전관리를 맡는다.

보령시 세 번째인 이 충전소는 하루 최대 1000kg의 수소 공급이 가능해 수소차 160대와 수소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교통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도내 어디서든 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현재 7개 시군 13곳(25기)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보령시·계룡시·부여군·천안시 등 4개 시군에 5곳(11기)을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업국장은 "이번 준공으로 서해안권 도민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포항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재정비

12억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

포항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코스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봄철을 맞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포항의 대표 걷기 코스로, 절벽과 해안 암반, 어촌 풍경을 따라 바다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해안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다. 전체 구간은 1~4코스로 나뉘어 있으며, 코스마다 서로 다른 지형과 풍광을 품고 있어 다양한 걷기 경험을 제공한다.

포항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2코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흥환간이해수욕장 1.3km 구간에 데크로드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데크를 교체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2코스.

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해안 절벽과 암반 지형이 이어지는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보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정비로 선바위와 힌디기 등 기암 경관과 하선대 일대의 탁 트인 해안 조망, 어촌의 정취가 남아 있는 흥환간이해수욕장을 있는 구간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 하동군, LNG복합발전소에 1.3조 투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선제 대응

하동군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이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경남도청 대회 의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하동군 금성면 LNG복합발전소 건립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 내 8개 시군과 16개 기업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체결한 상생 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남부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2·3호기를 대체해 약 7만 1000㎡ 부지에 친환경 LNG복합발전소를 짓는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기대 효과도 크다. 대규모 건설 공사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협력업체 유입이 늘고, 준공 후에는 발전소 운영·유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5일 서성재 부시장과 함께 대통령실 기후에너지비서관을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2365곳 점검

오는 4월 10일까지 집중 안전점검

경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 사면, 옹벽, 국가유산 등 2365곳을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와 전도,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높다. 도는 이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술사와 교수,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해 전문성

을 높인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용해 도민 참여도 확대한다.

수시 낙석 발생 지역과 땅밀림 우려 구간,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마을순찰대도 점검에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노후화가 심한 시설은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조치와 위험 구역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K-뷰티 브랜드, 남미로 간다... 스킨케어 등 현지화 박차

달바글로벌 해외 포트폴리오 강화 에이블씨엔씨 '유폴리아' 매장 입점 토니모리 멕시코 시장 개척 나서

K-뷰티 브랜드들이 남미 시장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브랜드들은 현지화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2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신생인디 브랜드인 달바글로벌은 올해 실적 전망치로 연간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률 21%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을 본격화한다. 해외 매출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해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특히 인도·중동·남미를 3개 지역을 신규 전략 권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현지 인력 채용, 유통망 구축 등을 병행해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 침투율을 높여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얼타뷰티 멕시코 1호점 전경

/토니모리

달바글로벌은 해외 사업에서 현지 내재화로 성과를 내었다. 온라인 판매를 직접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해 소비자 수요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달바글로벌 측은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오프라인 성공률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시장에서 현지법인을 마련하는 등 이익률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조 K뷰티격인 1세대 로드

숍 브랜드들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에서도 남미는 신중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에이블씨엔씨는 멕시코 K뷰티 전문 채널 '유폴리아'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 지난해 8월 유폴리아 1호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4개 매장에 순차적으로 입점했다.

유폴리아는 멕시코 대표 유통회사 바키그룹이 공개한 K뷰티 전문 매장이다. 오는 2030년까지 35개로 매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지 주요 유통망이다.

에이블씨엔씨는 주력 브랜드인 미샤를 비롯해 어퓨 등 메이크업 제품을 집중 선보이고 있다. 미샤의 매직쿠션과 B B 크림은 출시 직후, 유폴리아 내 메이크업 제품 판매량에서 상위 5개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아마존 멕시코 입점도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현지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뷰티 시장 중 하나"라며 "K뷰티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빠르게 공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니모리도 멕시코 시장 개척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얼타뷰티 멕시코 1호점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매장은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진 얼타뷰티가 미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 설치한 오프라인 공간인 것이 특징이다. 향후 얼타뷰티가 멕시코 매장을 추가함에 따라 토니모리도 발맞춰 입점 확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니모리는 앞서 멕시코에서 코스트코, 월마트, 세포라 등 글로벌 대형 유통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왔다.

이와 관련 토니모리 측은 "우수한 K뷰티 제품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 인기를 검증했다"며 "새로운 유통망을 지속 개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남미 시장에서의 K뷰티 경쟁력은 역지구 수치에서도 확인됐다.

바른손이 운영하는 글로벌 K뷰티 온라인 플랫폼 졸스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글로벌 선케어 판매 데이터에서 남미 시장 비중이 전체의 66%에 달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졸스는 남미 내 거점 지역으로는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을 꼽았다. 칠레의 경우 남미 선케어 판매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남미는 연중 내내 자외선 지수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K뷰티 스킨케어와 그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단순 K뷰티 흥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는 것이 브랜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대형마트 "삼겹살 100g, 990원에 드려요"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소비자 부담 완화 돼지고기 중심 제철과일·생필품 등 할인

다가오는 3월 3일 삼겹살 데이와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수입산 삼겹살을 100g당 990원에 내놓으며 초특가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고물가로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간판 할인 행사인 통근데이를 통해 26일과 27일 이틀간 수입산 삼겹살 100g을 행사카드 결제 시 990원에 내놓는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국내산 삼겹살 100g을 1390원에 제공한다. 삼겹살과 곁들이기 좋은 새송이버섯과 청도 미나리도 저렴하게 내놓으며, 쌈장 전 품목은 1+1로 선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7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대 10% 할인 쿠폰 묶음도 증정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5일장을 전개하며 맞불



롯데마트가 '3월 통근데이'를 열고 삼겹살 등 먹거리를 파격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을 내놓는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산 삼겹살과 목심 100g을 990원에 특가에 선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1인당 1kg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26일부터 회원 대상 1290원 반값에, 한돈 삼겹살과 목심은 1990원에 내놓는다. 마이홈플러스 애플리케이션 회원을 대상으로는 행사카드

로 결제 시 1만원 또는 5000원 할인 쿠폰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100% 당첨 행사도 실시한다.

두 대형마트 모두 메인 행사인 돼지고기 외에도 제철 과일인 딸기와 가공식품, 주요 생필품에 대해 1+1 혜택과 반값 할인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삼립, 'K-치즈케익' 글로벌 수출 확대

코스트코 초도물량 완판... 입점 확대

'삼립 치즈케익'이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 입점 3주 만에 초도 물량 56만 봉을 완판하며, 미국 전역 코스트코로 입점을 확대했다. 한국식 제조 공법을 적용한 K-스타일 치즈케익의 차별화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삼립은 지난해 9월 한국 베이커리 제품 최초로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 100여 개

매장에 삼립 치즈케익을 선보였다. 삼립 치즈케익은 판매 개시 후 3주 만에 하루 평균 약 2만 7000 봉이 판매되며,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도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삼립은 11월부터 초도물량 대비 9배 확대된 2차 물량 약 500만 봉을 미국 전역 약 300개 코스트코 매장에 공급하며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 2차 물량은 판매 개시 이후 초도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당 평균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립은 올해 7월까지 약 1000만 봉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인기의 배경에는 삼립의 차별화된 베이커리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다. 삼립 치즈케익은 서양의 '굽는' 방식과 동양의 '찌는' 방식을 접목한 독자적인 제조 공법을 통해 은은한 크림치즈의 풍미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구현했다.

삼립 치즈케익은 현재 베트남, 중동을 포함한 1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신세계百貨, 'K-콘텐츠·쇼핑혜택' 강화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연장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이 한국관광공사와 지난해 맺었던 3자 간 업무협약을 올해도 연장해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 매출 1조원 달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6500억원가량의 외국인 매출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1월에도 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랜드마크 전략과 더불어 한국관광공사와의 공동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관광 통합 플랫폼 VISITKOREA(비즈코리아)를 통해 8개 언어로 관광객들과 소통했으며, 해외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해 왔다.

올해 신세계는 신규 K-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본점 더 헤리티지,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국내 숨은 명소와 미식을 소개하는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해외 로드쇼와 트래블마트 등 여행 박람회 참가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쇼핑 혜택 역시 대폭 확대된다. K-패션, 뷰티, 푸드를 중심으로 월별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에서는 VISITKOREA 회원 전용 웰컴팩과 구매 금액별 쇼핑 바우처를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이성한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더 고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마련해 한국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홈플러스 "구조혁신 계획 차질없이 실행"

사업성 개선 등 가시적 성과 나타나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며 비용 절감과 사업성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혁신안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초안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부실 점포 41개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 전인 2025년 2월 1만 9924명이던 직원 수

는 2026년 4월 기준 1만 6450명으로 3474명(17.4%) 감소해 약 16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전체 정리 대상 41개 점포 중 19곳을 연내에 영업 종료할 계획이다. 임대료 조정과 부실 점포 정리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만 1000억원이 넘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완료하면 2028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도 적극 추진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중 100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해 조만간 자금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손종욱 기자

# 차세대 코팅 기술 'iCVD', 오가노이드·바이오칩까지 확장

iCVD 최신 성과·사례 공유 워크숍  
실온 공정 가능, 독성 문제 없어  
세포종 맞춤 표면설계 가능성 제시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iCVD(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술이 차세대 코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전한 기상 증착 기술을 기반으로, 인체에 독성이 없는 고분자 박막을 정밀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오가노이드, 바이오칩 등으로 플랫폼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iCVD의 활용 가능성은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카이스트 '차세대 고분자 박막 기반 표면 기술 연구회'는 지난 24일 카이스트 학술회관에서 'iCVD 기반 고분자 박막을 통한 소재 표면 기능화 전략 워크숍'을 갖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다진했다.

차세대 고분자 박막 기반 표면 기술 연구회는 임성갑 나노이시스(NANO AEGIS) 대표이자 카이스트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가 올해 초 조직한 단체로, 첫 워크숍을 통해 iCVD



임성갑 나노이시스(NANO AEGIS) 대표이자 카이스트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가 24일 카이스트 학술회관에서 열린 'iCVD 기반 고분자 박막을 통한 소재 표면 기능화 전략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있다.

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소개했다.

iCVD는 신개념 코팅 기술로,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료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마치 김이 서리는 것처럼 표면에 증착시키는 기상 공정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표면이나 열화학적으로 민감한 소재에도 균일하고 내구성이 좋은 코팅을 구현할 수 있다.

iCVD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존하는 코팅 기술 중 가장 투명한, 높은 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코팅 기술이 높은 기온이나 유기용매를 필요로 했다면 iCVD 공정은 실온에서 진행 가능하다. 또 아무런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기체 상태로 증착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와 모양에도 적용할 수 있다.

iCVD 응용분야가 바이오 메디컬로 확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독성 소재 배출이 없고, 항생제내성균으로 잘 알려진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한 많은 세균에 대한 우수한 멸균 기능을 갖고 있어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임성갑 대표는 "iCVD 공정은 슈퍼박테리아는 물론, 각종 곰팡이, 가시아메바 등 다양한 박테리아의 멸균 코팅이 가능하고, 두달 이상의 보관 안전성도 확보했다"며 "콘택트렌즈는 물론 스탠트, 카테터 등 삽입형 의료기기에 범용 사용이 가능하고 푸드패키징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섬취형 디바이스에 iCVD 공정을 도입한 사례도 소개했다. 체내 삽입형 디바이스의 경우 코팅은 얇아야 하는 반면 위산과 같이 강산성 물질로부터 디바이스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한 보호 성능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금속의 부식 등으로 인한 독성이 인체 안정성을 해치거나 기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성이 필수 요소다.

송윤성 국립금속공과대학 교수는 "섬취형 디바이스에 iCVD 공정을 도입한 결과, 얇지만 강한 보호성능, 견고성, 내구성, 인체 안정성 등을 확인했다"며 "차

세대 바이오센서의 디자인이 점차 소형화 되고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iCVD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가노이드 배양용 스캐폴드나 미세유체칩과 같이 복잡한 구조에도 표면 특성에 맞는 균일한 코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진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세포배양 플랫폼으로서의 iCVD 공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영학생명연 국제아젠다연구소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박사는 iCVD 공정을 거친 배양 플랫폼을 활용한 결과, 전분화능 줄기세포와 장 줄기세포 등의 장기 배양 안전성을 확인했고, 각 줄기세포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같은 세포여도 표면 분자 구조에 따라 단백질 흡착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포마다 배양 표면의 정밀 설계가 중요한 요소다"라며 "iCVD 통해 다양한 세포 인터페이스 설계 및 제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종에 맞춤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헴리브라' 학술지 게재... 日서 안전성 확인

JW중외제약, 대규모 시판 후 조사  
연간 출혈률 중앙값, 안정적 수치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맵)'의 일본 내 시판 후 조사(PMS) 최종 분석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헤모필리아'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갖췄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제8인자 대체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본 나라의과대학 미도리 시마 교수 연구팀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일본 내 항체 보유 선천성 A형



'헴리브라' / JW중외제약

혈우병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전체 투약군인 '안전성 분석군(134명)'과 신규 투약자로 구성된 '유효성 분석군(101명)'을 설정해 최장 3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116명(86.6%)이 중증 환자였으며 연령대는 0세 영유아부터 78세 고령자까지 포함됐다.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성 분석군

134명 중 122명(91%)에게는 약물이상반응(ADR)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조사 기간 중 인공관절 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포함해 총 30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 지혈을 위해 우회인자제 등 지혈제를 병용한 상황에서도 혈전색전증이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혈제 병용 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혈전성 이상반응 위험 없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출혈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유효성 분석군의 '치료가 필요한 연간 출혈률' 중앙값이 1.3회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또 전체 환자 중 53명(39.6%)은 투약 기간 동안 단 한번의 출혈도 경험하지 않은 '무출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에스티팜, 'TIDES 아시아 2026' 참가

임상부터 시료까지 파트너십 확장

에스티팜은 24~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핵산·펩타이드 치료제 전문 행사인 'TIDES 아시아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티팜은 이번 행사에서 사전 조율된 미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개발생산(CDMO) 협력, 상업 공급, 공동 개발, 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기존 상업화 중심의 파트너십을 초기 임상 단계 시료 공급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신규 수요가 기대되는 일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중장기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청하 기자

에스티팜은 고품질 올리고 원료의약품(API) 생산 역량과 비임상 및 임상 초기 단계의 소규모 생산부터 상업화 단계의 대규모 생산까지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스케일업 인프라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티팜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형간섭RNA(siRNA) 및 안티센스 치료제 상업화를 공략하며 해외 프로젝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 대량 생산 능력과 함께 규제 대응 역량 또한 핵심 경쟁 요소다. 에스티팜은 글로벌 관계자들과 품질 시스템, 다수의 상업 공급 경험 등도 공유하며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 진양곤 의장 'HLB파나진' 주식 추가 매입

HLB그룹 "미래 가치 확산 반영"

HLB그룹은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지난 13일~23일 HLB파나진 주식 9만4747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이달 초 장내 매수한 20만5064주를 포함해 진 의장이 보유한 HLB파나진 주식은 약 30만주에 달한다.

HLB그룹에 따르면, 이번 지분 확대는 HLB파나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 실제로 항체·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접합체(AOC) 기반 신약 플랫폼 개발 진입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HLB파나진은 인공핵산 'PNA' 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체·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접합체(AOC)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연 결기준 연간 매출 1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눈 등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

HLB그룹 관계자는 "항체의 정밀 표적 기능과 핵산 치료제의 유전자 조절 기능을 결합한 AOC는 차세대 치료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 '색상차트로 판독 개선'

동아제약은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 '이체크'에서 배란일 예측을 돕는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한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집약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활성효소로 충치균 분해"

페리오 키즈 효소의 발견 2종 출시

LG생활건강은 어린이용 충치 예방 치약 '페리오 키즈 효소의 발견'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어린이들의 칫솔질이 치아 굴곡면과 틈새까지 꼼꼼히 닿지 못해 충치가 생기기 쉬운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활성 효소 성분이 치아 구석 구석에 남은 충치 원인 물질 '프라그'를 찾아 없앤다.

특히 당 분해에 특화된 활성 효소 '덱스트라나제'가 양치 후에도 8시간 동안 잔류하면서 치아 사이 충치 원인 물질을 추적하고 분해하도록 설계됐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제품 사용 시 충치 원인 물질 플라그가 8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효능평가를 통



'페리오 키즈 효소의 발견 치약' 2종. /LG생활건강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 원인균 99.9%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

과일 유래 효소 성분과 함께 1450ppm의 불소 성분도 처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는 고불소 치약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다.

/이청하 기자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롯데GRS,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롯데GRS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롯데GRS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삼양식품은 김정수 부회장이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41회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을 여성 경영자가 수상한 것은 1987년 제정 이래 처음이다. 김 부회장은 내수 중심의 전통적 식품 산업 구조를 수출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며 국내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양식품



**금호건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금호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필벽재단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필벽재단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대지'의 작가 필벽 여사가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문 복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고 있다. /금호건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대진 19대 회장 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대진 회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문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의산업 분야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통상정책국장·통상차관보를 역임했다. /양성운 기자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존경받는 CEO' 2년 연속 수상**

SK바이오팜이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SK바이오팜은 핵심 부문인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상위 23위(Top 23)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부문에서는 이동훈 사장(사진)이 구성원과 열린 소통과 신뢰 기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세경 기자 selee@



**정의선 "소방관 위해 '사람 살리는 기술' 더하겠다"**

(현대차그룹 회장)

**무인소방로봇 4대 기증 화재현장에 로봇 먼저 투입 6월 국립소방병원 차량 지원**

"기계를 만드는 제조회사로서 소방관들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회사로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은 24일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초동 진압과 수색을 수행하고 인명 구조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회장과 성김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이진호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증 행사에 참석한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소방관 여러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소방청과 무인소방로봇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HR-셰르파는 전기구동 기반의 원격 주행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 공용 무

인차량으로 임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대차그룹은 여기에 ▲소방 방수포 ▲자체 분무 시스템 ▲시야 개선(열화상) 카메라 ▲원격 제어기 ▲내열 장비 등을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원격 진압·탐색 임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장비는 현장 수요에 맞춰 우선 배치된다. 기증된 4대 가운데 2대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각각 1대씩 먼저 배치돼 현

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3월 초 경기 남부와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무인소방로봇을 최대 100대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오늘 기증하는 무인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며 "위험한 현장에 먼저 투입돼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6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에는 차량과 재활장비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추가 적용할 것이며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기 위해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기증했으며 2024년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관통형 진압 장비 'EV 드릴 랜스' 250대를 소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LG, 초슬림·로봇·친환경 통했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6' 석권 삼성, 금상 2개 포함 77개 휩쓸어 LG, 올레드 예보 W6 등 26개 쾌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주요 부문 상을 석권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금상 2개 등 총 77개 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5'와 '지속가능한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로 금상 2개를 수상했다. 이를 포함해 제품 39개, UX 14개, 커뮤니케이션 5개, 콘셉트 16개, 서비스 디자인 3개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뮤직 스튜디오 5는 구(Orb)와 점(Dot)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오브제형 와이어리스 스피커다.



삼성전자 와이어리스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5'

LG전자는 집 안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에 사람의 표정, 음성, 몸짓에 반응해 상호작용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 약 9mm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예보 W6' 등 혁신 제품이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총 26개 상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올킬'**

iF 2026 본상으로 정유사 최초 기록

GS칼텍스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서비스, 시스템 & 프로세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GS칼텍스는 지난해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개 부문 및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 10월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이어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까지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전세계 최초의 정유사가 됐다.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1954년부터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

인 ▲브랜딩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서비스, 시스템 & 프로세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GS칼텍스는 주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에너지플러스 앱을 2021년에 출시해 새로운 주유 경험과 혜택을 제공해 왔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히 반영해 앱 속도 개선, 결제수단 연동, 쿠폰 등록 프로세스, 주유소 판매가 업데이트 등의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SKT,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협력사 1:1 맞춤형 컨설팅·실무 교육

SK텔레콤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SK텔레콤은 협력사별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솔루션 개발 등 협력사와의 소통 활동이 평가를 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회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성 평가 개선,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이후 도입된 안전제도와 개선 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논의하는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메인비즈협회, '미래내일 일경험' 모집**

8주 또는 12주간 인턴십 경영·마케팅·IT 등 분야

메인비즈협회가 3월부터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인턴형)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25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8주 또는 12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익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광고·마케팅, IT로 청년

과 기업 모두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분야 위주로 구성했다.

인턴 1명당 4주 기준으로 ▲청년 지원금 최대 150만원 ▲기업 내 실무 멘토를 위한 수당 15만원 ▲기업 지원금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과 일대일 취업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맞춤형 부대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박봉용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북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국장급 직무대리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근

**부음**

▲임금자세 별세, 김남희(청주시오창읍장)씨 모친상, 신형근(충북도기업진흥원장)씨 장모상 = 25일 오전 5시48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1호, 발인 27일 오전 7시, 043-298-9200

# 의대 합격의 문턱과 '10년의 무게'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7대학입시는 대한민국 의료 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원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구체화 됨과 동시에, 지역 의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시 현장에 전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의대 진학은 단순히 성적에 맞춘 합격을 넘어, 면허 취득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지가 됐다.

### ◆정책의 본질 :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

지역의사제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백의 구조적 해결에 있다.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에게 입학 문호를 넓혀주는 데 그쳤다면,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부터 특정 지역 정착을 전제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수험생은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며 지역 필수요료를 수행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자는 이 제도를 공공 의료 리더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장기적 커리어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입시 전략 : 조금 낮아질 합격선과 강력한 페널티의 저울질

입시 공학적 측면에서 지역의사제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기회이자 리스크이다. 10년 의무 복무라는 조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한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심리적 저지선을 형성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반 지역인재 전형보다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정착 의지가 확고한 학생에게는 의대 진입의 문턱을 낮춰주는 결정적 통로가 될 수 있다.

### ◆커리어 로드맵 : '버리는 10년'이 아닌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

많은 수험생이 10년이라는 복무 기간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커리어 과정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에는 인턴 1년과 전공의 4년 수련 과정이 포함된다. 즉,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에 공헌하는 실질적인 기간은 5년 내외이다. 이 기

간은 의료인으로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지역 사회의 핵심 의료 인력으로 자리 잡으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 ◆정주 여건과 지원책 : 지자체별 맞춤형 혜택 분석 필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권역의 의료 인프라와 지자체별 추가 지원책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2026년부터 각 지자체는 지역의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 연구비 제공,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가 해당 지역 거점 병원에서 충분한 임상 케이스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 ◆결언 : 지역 의료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용기 있는 선택

결론적으로 2026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지방 유학'이 아닌 '지역 리더'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 전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적 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살겠다는 당당한 선언이어야 한다. 준비된 지원자에게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의 의학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가 될 것이다.

/JBS진로진학연구소장

## 환율에 울고 웃는 면세점과 백화점



기 지 수첩  
손 중 옥  
(유통&라이프부)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강제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단행했다. 엔화 가치가 치솟자 일본 수출품 가격은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밖의 이득을 본 건 한국이었다. 일본과 수출 경쟁도가 높았던 한국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얻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 호황'과 맞물려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역사에 남을 어부지리였다.

오늘날 국내 유통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 가치

가 하락하면서 유통 채널 간 허비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은 환율 상승 직격탄을 맞았다. 상품 가격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 세금을 면제받아도 가격 메리트가 떨어져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세점 4사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길 잃은 소비자들 이 향한 곳은 백화점 명품관이다.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고정된 백화점은 가만히 앉아서 저렴하다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 결과 올해 백화점 4사는 나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세가 매섭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 이후 외국인 매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년 대비 25%, 신세계백화점은 3.5배나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며, 면세점 대신 백화점을 선택한 '외국인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이 이 황제에 마냥 취해 있어서는 곤란하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3저 호황의 단물만 빨아먹는데 그쳤다면 오늘날의 변명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기에 고환율 시대가 끝난 뒤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현재 백화점 업체를 맴도는 훈풍에는 환율이라는 외부 요인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환율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지 마련이다. 면세점이 다시 가격 매력을 되찾았을 때도 고객의 발길을 붙잡아두려면, 단순한 환율 차익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큐레이션과 특별한 경험을 증명해 내야 한다. 면세점 역시 돌아올 손님을 찾기 위해 자체 제작 상품 등 눈길을 끌 요소들을 발굴해내야만 한다.

/handbell@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1월 1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거래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운이 따르니 즐거움이 있습니다. 72년생 새로운 동료나 협력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상대를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49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이 있습니다. 61년생 모든 것이 흐릿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73년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85년생 새로운 일보다 현재 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50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년생 좋은 운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습니다. 8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현재 추진하는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63년생 부부, 이성운이 길하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75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8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다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여행이나 외출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77년생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점점 운기가 좋아지니 계속 노력하세요.



54년생 결과가 좋다 하여 낭비하면 안됩니다. 66년생 사업운이 좋고 하는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78년생 신경쓸 일이 많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90년생 지금은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55년생 계속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명예가 올립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으니 이득이 있습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휴식이나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0년생 새로운 사업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82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욕심보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59년생 노력이 결실을 얻어 기쁩니다. 71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83년생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95년생 겸손하게 대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五行的 결



사주를 본다고 하면 복권에 당첨되는 운이나 미래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를 말하는 점술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명리학의 본질은 단순히 길흉을 점치는 주술만의 학문이 아니다. 인류가 탄생하는 시기부터 동안 축적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삶의 學으로 태어난 순간의 하늘과 땅의 기운을 시간의 좌표로 옮긴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데 앞서,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니. 어떤 사람은 불처럼 빠르고 표현이 앞선다. 어떤 사람은 물처럼 유연하면서 흐름을 잘 읽어낸다. 또 어떤 사람은 쇠처럼 질서와 기준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난리 물난리는 전쟁과 기아는 언제인가의 결을 읽어낸다.

학의 바탕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인 음양과 오행에 있고 사람의 몸과 마음은 목 화 토 금 수라는 다섯 가지 기운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운들이 돈, 일, 과학, 관계, 발전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지도이다. 왜 특정한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그런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면의 기운이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특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타고난 것을 알게 해주고, 주어진 성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법을 알려준다. 너무 성급한 사람에게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자기 스타일을 신뢰하게 만드는 용기를 권한다. 결국 명리학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고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이끌어주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 같은 지도가 있다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험한 길을 만났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8	7	6	
		9		4	3	
					1	
	4				2	3
5		8	1		9	
6	1			5		
1						
	2	7		5		
3	6	5		8	9	

### 결합형스도쿠

1530개

### 컬러스도쿠110

100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2	8	1	9	5	8
8	1	8	9	6	9	2	7
9	9	8	8	2	7	6	8
2	8	9	6	7	2	8	1
6	7	9	1	8	8	2	9
8	2	1	9	9	2	7	6
1	9	6	2	9	8	7	2
2	8	7	8	1	6	9	9
9	2	8	7	2	9	1	8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한강버스 내달부터 다시 뜬다 항로이탈 방지 등 안전 '풀장착'

### 내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 수심조사, 부표 개선 등 안전 확보 동·서부 노선별 왕복 16항차 운항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분(마곡~여의도 구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 → 4.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



한강버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 마곡 방면으로 운항하고 있다. /뉴스1

했으며,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특히, 저수로 사석 및 식생매트 일부 유실,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운항 재개한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중심 운항체계로 노선이 개편됨에 따라 여의도에서 잠실방향과 마곡방향으로 하루 32항차를 운항하면서 탑승객 수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는 노선 분할로 인해 여의도에서 동·서부 노선 간 환승하는 경우 환승 비용을 면제하고, 승선객이 여의도 선착장에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선착장 주변 한강공원을 활용해 승객 대기 및 편의 공간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동·서부 각 노선별 왕복 16항차 운항하며, 항차별 운항 간격은 약 1시간이다. 동부(잠실~여의도) 노선은 잠실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 운항 시작 후 마지막 배가 저녁 8시 27분에 도착하며, 서부(마곡~여의도) 노선은 마곡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 20분에 운항 시작 후 마지막 배가 저녁 7시 32분 도착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의대에도 변신 '사탐런'... 계열간 경계 완화

2026 정시 수험생 데이터 분석  
의대 9.3%, 한의대 74.8% 사탐 응시

2026학년도 정시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의·약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의 실제 지원 비율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 조합은 통상 인문계열 수험생이 선택하는 시험 구성이다.

25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계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의대의 경우 탐구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9.3%가 사탐 응시자로 집계됐다. 미적분·기하와 과탐 응시자가 중심이었던 기존 의대 지원 구조를 고려하면, 사탐 응시자 비율이 10%에 근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는 자연계열 수험생 일부가 학습 부담 완화나 점수 전략을 고려해 사탐을 선택한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함께,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통합형 수능 체제를 활용해 의대에 도전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한의대에서 더욱 두

렷하게 나타났다. 선택과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한의대 지원자 중 74.8%가 사탐 응시자로 집계돼, 사실상 지원자의 다수가 사탐 선택자인 구조를 보였다. 수의대에서도 사탐 응시자 비율이 40.5%, 약대는 23.8%로 나타나, 자연계열 학과라는 인식이 강했던 전공분야에서도 인문계열 성향 수험생들의 진입이 상당 수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데이터는 학습 효율성을 고려해 사탐을 선택한 전략적 응시자와, 메디컬 계열로 진로를 확장한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이 결합되며 나타난 결과"라며 "과거에는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경영·경제 계열로 향했다면, 이제는 문호가 개방된 메디컬 계열을 실질적인 합격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소장은 "대학별 가산점 구조와 수능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합격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결과는 메디컬 계열 내 선택과목 전략이 분화되고, 계열 간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올해 장애인 일자리 1만개 만든다

예산 2353억 투입... 역대 최대규모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 4개 과제, 29개 세부 사업으로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 240억 원(11.1%), 일자리 952개(10.3%)를 늘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기반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기회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택시운전원 양성,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자 양성 등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 고용률 3.8%보다 높은 5%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 청년인턴제와 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구로·불광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투기방지대책 마련, 토허제 적용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조기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관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시행한다. /이현진 기자

# 학점은행·독학학위제로 3.9만명 학위취득

누적학위 128만명... 교육제도 안정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올해 3만894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교 밖 학습과 국가시험을 통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성인 학습자들이 대거 배출되며, 평생학습 기반 고등교육 체제가 다시 한 번 규모와 지속성을 입증했다.

2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총 3만8944명이다. 제도별로는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8473명, 독학학위제 학사 471명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진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

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다. 현재 학사 120개, 전문학사 111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11개 학사 전공이 마련돼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적 학위 취득자는 약 12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점은행제는 125만7643명, 독학학위제는 2만4832명으로, 평생학습 기반 고등교육이 제도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무 / 07:08 | 해짐 / 18:22

2월 26일 (木) 음력 : 1월 10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5, 동두천 -2/15, 가평 -2/16, 파주 -3/14, 서울 2/15, 양평 -2/16, 인천 2/10, 수원 1/14, 용인 1/14, 평택 -1/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AI 공포에 식은 美 IPO 시장... "빅테크만 살아남나" /사진 뉴스1

▲"30분 비행에 14만3000원"... 中 춘제 '헬기' 예약 1.5배 급증

▲중기업, 보너스 87억원 현금으로 뿌렸다... "손이 모자랄 지경"

▲다다카이치, 의원 '카탈로그 선물' 논란에 "정당교부금 안 썼다"

▲로레알·다이슨도 IEEPA 환급 소송... "美 관세 돌려달라"

▲영국 방문 예정이라면 ETA 사전 신청 꼭!... 韓 포함 85개국 의무화



K-뷰티  
남미로 간다  
현지화 박차  
나



Life

차세대 코팅  
'iCVD' 기술  
영역 확장  
L2



# 쉽게 고르고, 편하게 마시고... 노란빛깔로 와인문턱 낮췄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롯데칠성음료 '옐로우테일'

와인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매대 한쪽을 꾸준히 지키는 브랜드가 있다. 유행을 좇기보다 '쉽게 집어 들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은 호주산 캐주얼 와인 '옐로우테일'이 그 주인공이다. 글로벌 판매량 연 1억4000만 병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20년 가까이 월 4만 병 이상 안정적으로 팔리는 이 제품은 번덕스러운 소비 트렌드 속에서 보기 드문 장수 히트 상품으로 통한다. 가격, 디자인, 유통 전략까지 대중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 브랜드는 침체된 와인 시장에서도 '스테디셀러의 공식'을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옐로우테일은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 콘셉트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옐로우테일 홈페이지

### '장수 히트상품' 호주산 캐주얼 와인 와인시장 침체 속에도 인기 꾸준해 '신동빈 와인'으로 브랜드 인지도↑

옐로우테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즐기는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탈한 신 회장은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제품이 아닌, 대중적인 브랜드인 해당 제품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 총수가 프리미엄 와인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대중 와인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소비자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라벨 디자인 역시 성공 요인 중 하나다. 병 전면에는 캥거루와 닭알이지만 체형이 작고 꼬리가 긴 동물 '알라비'가 그려져 있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미지는 소

비자가 매대에서 한눈에 원산지를 떠올리게 만든다. 복잡한 사토 이름 대신 그림 하나로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든 전략이다.

이 브랜드는 현재 약 70개국에 판매되며 전체 생산량의 약 84%가 해외로 수출된다. 특히 호주 전체 와인 수출 물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생산 설비 역시 대형화돼 시간당 약 3만6000병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우테일은 국내에서 롯데칠성음료가 공식 수입·유통을 맡고 있다.

국내 성과도 안정적이다. 유통업체 집계 기준 한국 시장 월평균 판매량은 약 4만 7000병 수준으로 장기간 꾸준한 판매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론칭 이후 약 20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 병을 돌파했다. 2015년 한-호주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층이 빠르게 확대된 덕분이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옐로우테일은 최근 4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 중이다.

브랜드의 출발은 가족 와이너리였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인 필리포 카셀라-마리아

카셀라 부부가 1969년 설립한 카셀라 와이너리가 모태다. 이후 아들인 존 카셀라가 1994년 대표에 취임하면서 사업이 본격 확장됐다. 그는 전통 와인 문법보다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는 콘셉트를 선택했고, 2001년 미국 시장 진출을 기점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다. 당시 목표 판매량은 2만5000케이스였지만 실제 판매량은 100만 케이스를 넘기며 단숨에 히트 상품 반열에 올랐다. 2013년에는 누적 생산 10억 병을 돌파했다.

### 직관적 이미지로 소비자 눈길 끌며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 콘셉트로 미시장 기점으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 지난해 국내 누적판매 1000만병 돌파

글로벌 주류 데이터 기관 IWSR와 시장 조사기관 Wine Intelligence에 따르면 옐로우테일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세계 1위 파워 와인 브랜드'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18개국 3억7800만 명이 넘는 와인 애호가들의 소비자의 인식·구매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로 단순 판매량이 아니라 브랜드 호감도와 충성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는 북미 성과가 결정적이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때 미국

시장에서 일부 프랑스 와인 브랜드 판매량을 앞선 기록도 있어, 전통 와인 강국 중심이던 시장 구조를 흔든 사례로 평가된다.

옐로우테일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라벨 디자인도 리뉴얼했다. 로고를 강조하고 품종 표기를 더 잘 보이도록 조정했으며, 상징 캐릭터인 알라비에는 짙은 테두리선을 더해 특히 화이트 와인 라벨에서 생동감을 강화했다. 라벨 하단에는 대표 수상 내역을 추가해 신뢰도도 높였다. 이는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의 디자인 개편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옐로우테일은 직관적인 라벨 디자인과 크라운캡 적용 등 기존 와인 시장과 차별화된 마케팅, 안정적인 품질, 합리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아왔다"며 "출시 이후 시간이 쌓이며 형성된 자연스러운 브랜드 충성도가 장기 흥행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생중계... 라쿠엔·롯데와 대결  
▲일본 이길 수 있을까...CGV, WBC 대표팀 생중계한다 /사진 뉴시스

▲K리그1 우승후보로 꼽힌 대전 황선홍 감독 "원하시면, 우승하겠다"  
▲멕시코 정부, 총격전에도 "북중미 월드컵 안전보장...개최지 변동은 없어"

▲이정후, MLB 시범경기 3경기 연속 안타...첫 타점도 신고  
▲동계올림픽 열기 잇는다...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오늘 강원서 개막

# SAMSUNG



## Galaxy Book6 Pro

Galaxy AI

**아카데미**

새로운 시작, 더 잘하고 싶어서

행사기간 2026. 01. 01 - 03. 31

AI 노트북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갤럭시 AI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 사양은 국가, 지역, 또는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amsung.com](https://samsung.com)